

전문대학 소식

2015
엑스포
특집호

전문대학교가 미래에너지입니다

전문대학, 성공시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2015 엑스포 특집호

발행일 2015년 8월 31일

발행인 이승우

주간 방성웅

발행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소 100-953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38(센트럴타워 7층)

홈페이지 <http://www.kcce.or.kr>

기획 디자인 (주)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T.031.955.1989)

인쇄 (주)서보미디어(T.02.2253.7800)

08

Intro

04 개회사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06 축사 엑스포 성공을 기원 주요 인사 축하 메시지

Happiness

08 On View 전성시대, 우리가 달린다

10 EXPO Time line 엑스포 다시 보기

Ability

18 EXPO Dream High 1 직업체험관

24 EXPO Dream High 2 각종 공연 및 경연

28 EXPO Dream High 3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Talent

32 Reporting 엑스포 학생기자단 활동

36 Interview 〈브랜드송 공모전〉〈UCC 공모전〉〈전문대학 스타 시즌 3〉대상 수상자

Challenge

42 Q&A 진학 및 진로 상담

46 Column 성공하는 꿈을 위한 한 마디

Uplift

48 News 1 제1회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

52 News 2 우리 대학 소식



18

24



18



36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전문대학, 성공시대

능력중심사회의 새로운 주인공 전문대학!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가 '전성시대'를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전문대학 엑스포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더욱 뜨겁게 달궜다.

EXPO

Lee Seong Woo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군장대학교 총장)

Message

01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전문대학 전성시대, 희망의 닳을 올리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7월의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굴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교육 박람회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대학 성공시대’라는 뜻의 ‘전-성-시-대’를 슬로건으로 전문대학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직업 체험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를 맞이한 전문대학 엑스포는 국내 직업교육 박람회 가운데 최대 규모이면서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탐색과 진로에 대한 실체적 정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 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보다 특성화되고, 학생 개개인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문대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전문가로서 대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문대학인들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알리고 풍부한 직업교육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5년 대한민국 엑스포 행사가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잔치마당으로 어우러지길 기대하며 개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대학의 새로운 위상과 가치를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

김재춘 교육부 차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전문대학 엑스포에서 뒤흔쳐 반갑습니다. 2013년에 첫 개최를 한 전문대학 엑스포는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새롭게 변모하는 전문대학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업인 520만 명을 양성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삶의 힘과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전문대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국가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명실상부한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해서 특성화와 현장 일자리 중심교육과 같은 전문대학의 블루오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을 통합한 5년 직업교육 과정인 '유니테크' 사업을 신설하여 취업이 보장된 상태에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수업을 듣고, 졸업 후에는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문대학의 강점과 지속적인 변화를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전 국민이 함께 나누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Message
01



새로운 위상 보여주는 전문대학 엑스포를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재 채용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능력중심사회, 직무능력 우선이 그것. 그리고 이를 선도하는 전문대학! 이를 증명하듯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현장에는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대학 엑스포에 남긴 축사를 지면으로 옮겨보았다.

Message
02

백한 꿈 이루는 창의적인 엑스포가 되기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우리 전문대학은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달려왔던 건인차요 동력이었습니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국민의 절망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의 엑스포가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분야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창의적인 엑스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배우며,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는 백한 꿈을 이루는 전문대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국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전성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Message
03

청년 실업 심각, 하지만 전문대학의 경쟁력 크다

유기홍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성황리에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모두가 축하와 자축의 박수를 쳐봅시다.

우리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서 그동안 550만 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10대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전체 대학 교육의 40%가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대학의 평균취업률이 61%에 이르러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소위 U턴 입학이 3년간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들의 교육비용 2,700억 원이 낭비되었지만 역설적으로 4년제 대학의 잡 미스매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취업을 위해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현상으로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도 전문대학과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축하드립니다.



Message
04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로 가득한 전문대학 엑스포에 가슴 뭉클

박창식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대학 엑스포에는 참석할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그동안 전문대학인들이 대한민국 경제발전 에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발의한 지 2년 이 지났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설립 취지부터, 그 뿌리부터 다릅니 다. 수업연한 다양화 등은 일반대학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 일 뿐입니다.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미리 와서 엑스포 현장을 둘러보니 지난 해와는 달라진 부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들이 살아 숨 쉬고 많은 고등학생들이 관심 있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고민을 전문대학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합니다. 한류가 뜨거울 때 동반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힘합시다. 축하합니다.



‘전문인’의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자부심 갖기를

에드워드 권 셰프

우선은 전문인으로서 더욱 반가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에 전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이런 행사가 마련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물론 많은 전문대학인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실업 문제나 고학력자들의 실업 문제 들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전문대학인의 경쟁력이 높아지 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학연이 있어야 성공한다거나 후자들이 얘기하는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는 표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인력의 필요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요리 학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2년이나 3년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인이 구 태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가지 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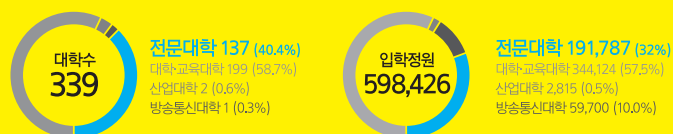


Message
05

[illegible]

한눈에 보는 전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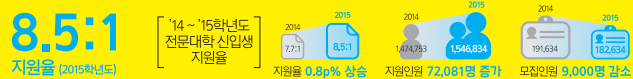
◆ 학교 수 및 입학정원 (2014학년도)



◆ 등록률 지속 증가



◆ 지원율 지속 증가



취업난 여파로 전문대학의 지원율과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문대학 2015년도 입시결과, 평균 경쟁률은 8.5대 1, 평균 등록률은 99%를 기록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경쟁률은 0.8%p, 등록률은 1.1%p 증가했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에 대비한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모집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며, 최근 5년간 전문대학의 등록률도 매년 상승했다.

◆ 최근 3년간 전문대학 'U턴' 입학자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이른바 '유턴입학'의 지원자와 등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전국 127개 대학에 5,489명 지원, 1,379명이 등록했는데, 전년 대비 지원자의 경우 505명(10.1%), 등록자는 96명(7.5%)이 증가한 것으로, 연간 천명 이상이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공별 지원 현황



◆ 2017학년도 모집전형 유형

2017학년도 입학전형은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 일정을 통일하고, 2016년 대비 2.0% (4,323명) 감소한 214,85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형유형별 모집계획에 따르면, 전체인원의 71.7%는 '학생부위주'로 선발되며, '면접위주'(8.8%), '수능위주'(8.2%), '서류위주'(8.2%), '실기위주'(3.1%) 순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한 각종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입학정보센터 (<http://ipsi.kcce.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정보센터에서는 수험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의 편의를 위해 대학별 진학정보와 전년도 입시결과 제공, 온라인 Q&A를 통한 입학상담 등 전문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한다.

Part 01

교육개혁 5대 과제

교육부의 중점 현안으로서 교육개혁 5대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신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 및 확산 등을 전시, 정부 교육정책과 발맞추는 전문대학의 의지를 다졌다.

Part 02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은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취업률 80% 달성과 매년 핵심 전문 인력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NCS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각 대학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art 03

한눈에 보는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전국 분포도와 함께 전문대학 입사와 관련한 각종 지표를 보여주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원율과 전문대학 U턴 입학 현황 등 달라지고 있는 전문대학의 위상을 숫자와 그래프로 제시했다.

Expo Time



도전하는 젊음들의 성공시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 교육청 등이 후원한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전문대학 엑스포는 최대 규모의 직업체험 박람회로서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각 대학이 마련한 직업체험 부스의 프로그램은 더욱 알차게 준비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탐색은 더욱 진지해졌다. 전문대학의 전성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그 사활의 장정을 따라가 본다.



전문대학 엑스포에서 스타트!

11:00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개막식

1st
DAY

엑스포 개막, 힘찬 팡파르!

2015.7.30(Thu), 10:00~17:00





SBS-R 케이월의
'대단한 라디오'
공개방송



15:00



● 엑스포의 개막은 행사장 앞쪽의 테이프 커팅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우 회장, 김재춘 교육부 차관, 박주선 국회 교문위 위원장, 에드워드 권 셰프를 비롯한 내외빈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개막식에서는 MBN 김지혜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승우 회장의 개회사와 주요인사의 축사로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 개막식 후에는 동아방송예술대의 UHD-TV 교내 방송 환경을 구축 상황을 소개받고, 계명문화대의 젤네일 체험, 제주관광대의 카지노 딜러 체험, 신안산대학의 칵테일 만들기 체험 등을 직접 해 보기도 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화장품 연구 개발과 동서울대학교의 시계주얼리학과 등 전문대학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스를 찾아보기도 했다.

● 이번 엑스포는 진로·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행사가 준비되었으며,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인 전문대학을 널리 알리는 행사로 꾸며졌다. 무엇보다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와 동시 개최되어 방문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전문대학 관련 입시 정보도 얻고 직업체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었다.

● 개막 첫 날 2만 5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열기 가득했던 분위기는 SBS 라디오 <케이월의 대단한 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절정을 이루었다. 에이핑크, 나인뮤지스, 핫샷, 매드크라운 등의 인기 가수들이 펼치는 공연에 드넓은 엑스포 행사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



직업 체험관

10:00

2nd
DAY

흥미진진 열기 가득, 직업의 세계!

2015.7.31(FRI), 10:00~17:00

15:00

전문대학 출신 아이돌 가수 축하공연
〈DREAM 콘서트〉

16:00

브랜드송
UCC 공모전 시상식



- 3년차를 맞이하는 전문대학 엑스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며 체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장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초·중학생들도 부담 없이 행사장을 찾았다.
- 각 대학이 준비한 직업 체험 부스는 저마다 아이디어를 뽐내며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었다. 조리사가 되어보거나 동물을 조련해보고,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미래 자동차를 운전해 보기도 했다. 각종 모형 만들기나 네일아트 등을 이용한 꾸미기 활동도 해볼 수 있었다.
- 직업체험관은 모두 7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63개 대학이 91개의 부스를 설치하였다. 학교 홍보와 더불어 직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는데,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학교에서 배운 솜씨로 빵을 만들거나 커피를 뽑아내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관람객의 손톱과 헤어을 매만지는 모습이었다. 이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향기를 뿜어낸다고 할까. 이들의 진지한 모습에 어린 관람객들은 직업에 대해 한 번 더 빠져들기도 했다.
- 이날 오후에는 전문대 출신 연예인들의 축하공연인 드림콘서트가 열려 열기를 더했다. 이번 드림콘서트에는 아이돌 그룹 빅스(VIXX)와 보이프렌드를 비롯해 가수 김보경(여주대학 실용음악과) 등이 출연하여 전문대학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다. 한편, 엑스포가 열리기 전 진행되었던 엑스포 브랜드 송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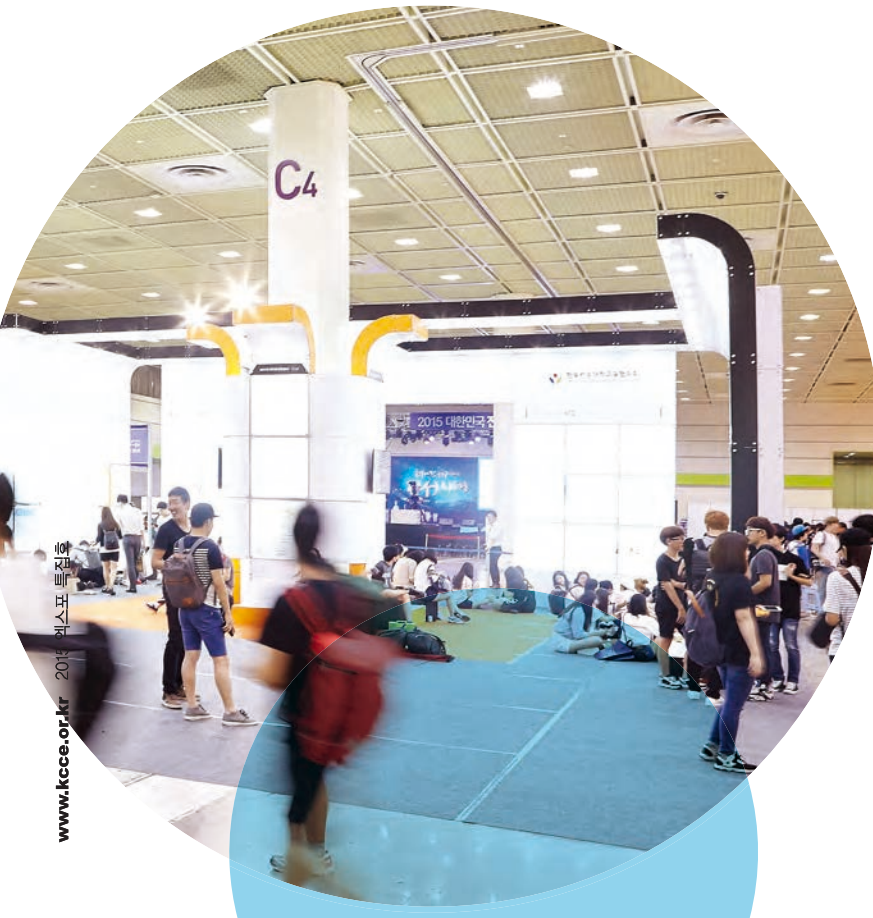
진로·진학 상담관
상시운영

3rd
DAY

누가 뭐래도 꽃보다 아름다워!

2015.8.1(Sat), 10:00~17:00

16 - 17





전문대학 출신
아이돌 가수 축하공연
〈DREAM 콘서트〉



15:00



16:00



전문대학 STAR 시즌3

- 엑스포의 마지막 날까지 행사장은 하나라도 더 알리고 하나라도 더 체험하려는 이들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
- 무엇보다 진지했던 진로 및 진학 상담실에는 대기하는 줄이 줄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 진로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한국교육심리학회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문 컨설턴트들이 '진로·진학상담관'에서 사흘 내내 상담을 진행했다. 나 홀로 혹은 부모님과 함께 상담관 앞에 앉은 이들은 전문대학 입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은 물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직업을 탐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아는 만큼 보이듯 무궁무진한 직업의 세계를 둘러본 학생들의 꿈도 그만큼 다양해졌을 것이란 기대가 절로 드는 자리였다. 또한 전문대학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을 한 겹 걷어내는 기회가 되었다.
- 마지막 날 역시 축하공연과 함께 경연프로그램이 열렸다. '전문대학 STAR 시즌3'에서는 전문대학생들의 끼를 발산하는 오디션 공연이 펼쳐진 것.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은 노래와 춤, 개성기 등으로 재능을 한껏 뽐냈다. 관객의 뜨거운 호응은 이미 한류스타를 만난 듯해 흐뭇함을 자아냈다.
- 알차고도 뜨거웠던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는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막을 내렸고, 좀 더 발전된 내년을 기약했다. ♡



“아하! 
이런 직업이...”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생생하게 다가오는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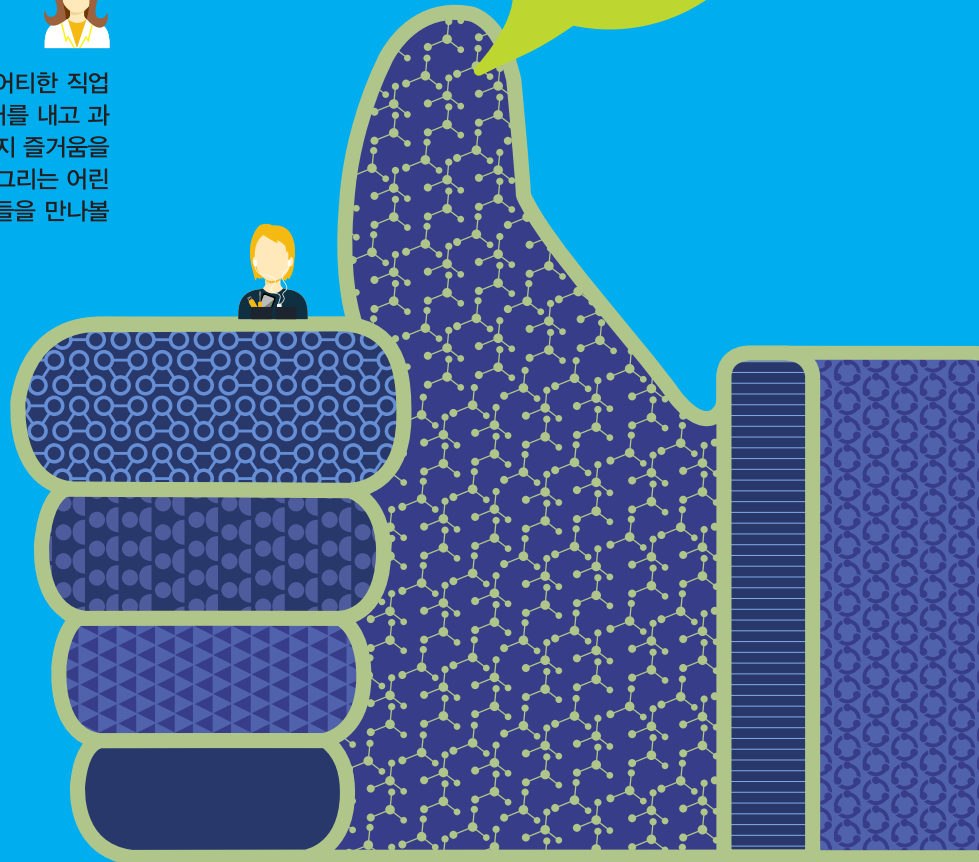


전문대학 EXPO의 핵심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버라이어티한 직업 체험관이었다.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교 전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과정을 준비한 각종 직업체험 부스들은 관람객들에게 갖가지 즐거움을 선사했다. 당장 진학을 앞둔 입시생부터 먼 미래의 꿈을 그리는 어린 아들까지! 행사기간 내내 발걸음이 이어졌다. 어떤 직업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흥미진진했던 직업체험 부스를 돌아보자.



EXPO
Dream
High^이

직업체험관





A zone 공학기술계열

첨단 공학 기술이 흥미진진

컴퓨터, 전기·전자, 기계, IT 등 14개 대학 공학 관련 학과가 참여하였다. 로봇과 자동차가 부스에 설치되었고 모형 승강기를 제작해보거나 시뮬레이터로 드론, 슈팅게임, 롤러코스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남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3D 프린터나 로봇 팔 시연 등 최근 기술도 선보여 흥미를 더했다.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계열	차세대 가상현실 슈팅게임(프로그램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밀기계과 / 기계자동차과	품질관리 및 정밀부품검사 엔지니어 / 로봇 및 자동화시스템 엔지니어
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계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및 수제 스포츠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의료기기과, 컴퓨터공학 & 그래픽과	의료기기 개발 /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부천대학교	전자과	전자기기 기술자
연암공업대학	스마트융합계열, EV 전공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 이해 및 체험 (간이 전기자동차)
수원여자대학교	모바일미디어과	승강기엔지니어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공학부	감동이 있는 기계공학 직무체험
대림대학교	기계과	화장품 연구 개발자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로봇 제어
동양미래대학교	자동화공학과 / 로봇공학과	선박 및 해양플랜트 설계
거제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가상게임 캐릭터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 체험 / 시계주얼리 디자이너 & 명품시계 제작
동서대학교	게임콘텐츠과 / 시계주얼리학과	메카트로닉스 기술자 / 첨단 미디어 체험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계열 / 입체영상미디어과	의료기기 개발 /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B zone 식품계열

내일의 스타 셰프가 여기에!

EXPO 관람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요리사 체험과 더불어 각종 먹거리까지 더해준 식품계열 부스는 언제나 붐볐다. 15개 학교의 식품 분야 직업체험관이 마련된 식품 B zone은 호텔조리과가 주축이 되었다. 바리스타, 바텐더, 제과제빵, 푸드 스타일링, 소믈리에 등 요즘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체험들이 가득했다. 학생이 셰프 체험을 하는 동안 부모님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인기 만점 체험관이었다.

군장대학교	커피바리스타과 / 호텔관광과 / 농식품자원과	커피 관련 직업체험 / 컵타일 페스티벌 / 발효 기술을 접목한 식품개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푸드스타일, 외식경영, 조리, 식품영양)	조리체험 스타일링
수원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영양사
유한대학교	호텔관광전공	바리스타&바텐더
백석문화대학교	외식산업학부	파티셰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제과제빵과	제과제빵사
두원공과대학교	호텔조리과	1일 케이크디자이너, 파스타 셰프 체험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조리사,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사
경민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 / 호텔외식조리과	바리스타 / 팔방수 만들기
인천재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 한식명품조리과	조리사 (호텔조리사, 외식조리사, 파티셰, F&B서비스원)
김포대학교	호텔경영과 / 호텔조리과	Thewaytohotelier / Chef's dream
신안산대학교	호텔외식산업과	가상게임 캐릭터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 체험 / 시계주얼리 디자이너 & 명품시계 제작
연성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바텐더 & 소믈리에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	조리사 직업체험
서영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미래의 파티셰와 함께!!





C zone 관광레저계열

직업의 세계는 언제나 즐거워~

모두 15개 체험관이 마련된 C zone에서는 멋진 항공승무원부터 화려한 카지노딜러, 활기찬 레저스포츠지도자까지 체험해볼 수 있었다. 말과 관련한 직업이나 애완동물과 교감을 나누는 체험 역시 눈길을 사로잡았다. 스튜어디스처럼 복장을 갖추고 메이 크업을 해보는 부스에는 여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현란한 솜씨로 컵쌓기를 보여주는 레저스포츠지도사 부스 앞에도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제주한라대학교	외식경영학과	외식서비스
한국관광대학교	호텔경영과	호텔리어, 소믈리에
대림대학교	항공서비스과	항공승무원 직업체험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과	항공승무원 기내서비스 체험
충청대학교	항공호텔관광학부 항공관광전공	항공사 객실 승무원
제주관광대학교	카지노경영과	카지노딜러체험
부천대학교	항공서비스과	항공서비스과 진로상담 및 수업체험
한국관광대학교	호텔경영과	항공객실승무원
경민대학교	관광레저스포츠과 / 항공서비스과	스킨스쿠버, 골프 / 승무원 이미지 메이킹 및 예비 승무원 체험
한국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항공예약 발권, 바리스타
한국관광대학교	디지털관광과	관광디자이너
수원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과	레저스포츠지도사
동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 호텔외식조리과	커피전문가 / 외식조리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조리실습
강원관광대학교	카지노과	카지노딜러
동서대학교	항공서비스과	항공승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D zone 뷰티계열

아름다움을 찾는 아름다운 꿈

10개 대학이 준비한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된 D zone에는 미용·뷰티 관련 학과와 방송 분장 관련학과가 참여하였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스타일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직업부터 모발 관리, 피부 테라피 등 건강한 미용 관리까지 아름다움과 관련한 직업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나아가 방송을 위한 분장이나 컬러코디네이터까지 독특한 직업도 체험할 수 있었다.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방송분장전공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퍼스널 컬러 코디네이터
서영대학교	뷰티아트과	서영 뷰티아트 셀프 스타일링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네일아티스트
대구공업대학교	뷰티아트디자인계열	헤나아티스트 디자인 문양사 체험
계명문화대학교	기업브랜드학부	네일아트 기술을 통한 에듀케이터 직업체험
오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네일아트 및 핸드마사지
국제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네일아트
두원공과대학교	뷰티아트과	토털 뷰티를 선도하는 뷰티아티스트 체험
동원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뷰티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두피모발관리사, 네일아티스트)
경북대학교	약손피부미용과 &뷰티메니저과	스킨테라트 / 스킨테라피스트&뷰티메니저 / 뷰티메니저

E zone 문화예술계열

최고의 꿈을 디자인하는 곳

영화 포스터 속 주인공이 되어보고 캐릭터 디자이너도 되어보는 한화예술계열 직업 체험 부스에는 총 15개 대학이 참여했다. 미디어 관련학과부터 도예, 가구인테리어, 패션디자인까지 범위도 다양했던 E zone에는 그만큼 보여주는 직업도 여러 가지였다. UHD TV 촬영 장비를 체험하며 PD가 되어보거나 조각칼을 밀어 나무시계를 만들며 가구디자이너를 체험하고, 모션캡처퍼포머로 디지털아트의 선구자를 꿈꾸는 기회도 만들어졌다.

신구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광고사진가 체험
한양여자대학교	도예과	도예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예술융합학부	UHD TV 방송촬영 장비체험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미술과	페이스페인팅 / 손수건, 다용도 주머니 꽃 물들이기 / 레고팔찌 만들기
김포대학교	실용음악과 / 시각디자인과	K-POP프로듀서 되기! / 디자인 잇 유어셀프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 전공	모션캡처 퍼포머 / 실감형 게임 제작자
계원예술대학교	화훼디자인과	Living style floral designer 체험
한국영상대학교	방송영상계열 학과	창의적 영상콘텐츠 제작 전문가
경인여자대학교	패션문화디자인과	패션 액세서리 체험
강동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패션 액세서리 제작 체험
동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My Color 추출체험
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과	소품가구 제작 체험
구미대학교	디지털컨텐츠과	캐릭터디자이너 체험
신한산대학교	산업디자인과 / 실내디자인과	그래픽 & 자동차 렌더링&인테리어 디자이너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과 / 미디어콘텐츠과	식물심기 체험 / 팝업 카드 제작 체험





F zone 의료보건계열

나이팅게일부터 응급구조사까지, 진지한 직업 탐색

전문대학 최고의 인기 학과들이 모인 의료보건 관련 직업체험부스에는 13개 대학이 자리를 마련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병원에서 만나는 직업부터 응급구조사, 보건운동관리사 등 생활 속 건강지킴이들과 안경사, 치과기공사까지 최고의 직업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준비되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고도 필요한 체험으로 다가갔다.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사
경북전문대학교	물리치료과	물리치료사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치과기공사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사와 건강 관련 (심폐소생술, 혈압측정, 노인대상자 체험)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응급구조사
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안경사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사 (심폐소생술, 건강검진 체험)
동원대학교	보건운동관리전공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돕는 건강 지킴이! 나의 몸을 체험하다(바른 자세&바른 생활습관)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 임상병리과	간호사, 임상병리사 체험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실습체험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치과위생사
경북대학교	임상병리과	보건의료 전문가 임상병리사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 치위생과	간호사 / 치과위생사



G zone 기타계열

전문대학에선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아동교육, 군사, 세무 관련 학과 등 9개 대학의 인기학과가 G zone에서 부스를 마련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군사학과가 스크린 사격체험을, 동물 관련 학과는 애완동물을 훈련시키는 법을, 아동미술지도과는 미술심리 검사와 창의미술 체험 등을 선보였다. 색깔을 활용하여 산업에 이바지하는 컬러리스트나 장신구 제작 체험 등 즐거운 체험으로 가득했다. 🐾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	훈련사, 실험동물 기술원, 동물간호사, 사육사, 애견미용사
한국관광대학교	군사과	스크린 사격 체험
천안연암대학	환경조경과 / 동물보호계열	조경사 및 애견훈련
경민대학교	아동독서지도과 / 아동미술지도과	아동독서지도사 / 미술심리 검사 진단 및 창의미술 체험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사 특기 프로그램 (풍선아트 및 리본공예)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과	세무사, 회계사
한국복지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 귀금속보석공예과	스마트 기반 원격교육 지원 시연 / 장신구 제작 체험
용인송담대학교	컬러리스트과	컬러리스트 색채조색
송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 아동미술교육과 / 유아교육과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워크북, 역할놀이 (전통결혼식) 체험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속
다채로운 행사

뜨겁거나 쿨하거나! 끼와 재능을 만나다

EXPO
Dream
High⁰²

이번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에서는 현장의 분위기를 살린 또 다른 여러 주인공이 있다. 이들 주인공들이 있어 행사는 개막 첫날부터 한껏 달아올랐다. 개막 행사에서 UCC 공모전 수상자의 공연이 있었고, 오후에는 '케이윌의 대단한 라디오'가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에이핑크, 나인뮤지스, 슈퍼키드, 핫샷, 매드 클라운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져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밖에도 전문대 출신 연예인들의 축하공연 'DREAM 콘서트'와 오디션 프로그램 '전문대학 STAR 시즌3' 등이 펼쳐져, 행사기간 내내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우리가 있어 여기에 있어 꿈을 꾸는 전성시대

‘요즘 따라 지쳐 보이네. 찡그린 얼굴 표정을 하고, 밤을 지새운 듯 피곤한 모습이 안쓰러 보여.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힘내라는 한마디론 부족해. 날개를 달아줄 해결책이 필요해. 답답하고 서투른 내 모습. 넘어지기만 할 때, 우리가 있어 여기에 있어. 꿈을 꾸는 전성시대. 미래가 있는 큰 꿈을 가진 사람아. 저 높이 비상 하는 곳, 여기 전문대학으로. 젊음 가득한 희망 넘치는 여기야. 전문대학 성공시대. 우리의 자랑.’

무게가 느껴질 법한 첫날 개막식에서 201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전문대학 브랜드송이 식장 가득 울려 퍼진다. 그리고 노래와 함께 세프, 항공승무원, 군인, 간호사 등의 복장을 입은 학생들의 신나는 율동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이하 전문대학 EXPO)’ 브랜드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동아방송예술대학 정국영 학생이 같은 학과 학생들과 함께 수상곡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관람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호응이 이어지고, 그렇게 전문대학 EXPO는 화려한 막을 올렸다.



대단한 공연, 케이월의 대단한 라디오

이제 오후 3시에는 전문대학 EXPO 행사장 내 중앙무대에서 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공개방송은 SBS 파워FM의 '케이월의 대단한 라디오'로, 'We are young'이라는 부제를 걸고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을 맡은 가수 겸 DJ 케이월은 "시간, 행복, 가족, 젊음 네 가지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젊음은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문대학 EXPO를 찾은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해피바이러스 청순돌로 불리는 에이핑크가 1부 첫 초대가수로 등장해 'Remember'와 'LUV'를 열창했다. 이어 나인뮤지스가 '다쳐'와 '드라마'를, 슈퍼키드가 '그럭저럭'과 '바라던 바다'를 불러 많은 관람객을 열광시켰다. 자신의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슈퍼키드는 방송 코멘트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들로 가득하다. 모두 호기심을 잃지 말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역주행 요정'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가수 백아연은 '이렇거든 그러지 말지'와 'A Good Boy'를 불렀고, 1부의 마지막 무대는 카리스마 넘치는 6명의 힙합 아이돌 핫샷이 장식했다.

2부 시작 인사에서 케이월은 이번 전문대학 EXPO의 슬로건인 '전성시대'는 '전문대학 성공시대'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2부의 시작은 이른바 '때려 박는 랩'으로 불리는 매드 클라운이 맡아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인어 보이스의 주인공 김예림이 '바람아'와 'Awoo'를, 음색이 섹시한 남자로 불리는 김필이 'Stay With Me'와 'Lose Control'를 감미롭게 들려주었다. 뉴이스트가 '여보세요'와 'Action'을 부른 후, DJ 케이월이 '오늘부터 1일'과 '꽃이 핀다'를 부르며 마지막 무대를 꾸렸다. 2년 가량 DJ를 했지만 처음 하는 공개방송이어서 많이 떨렸다는 케이월은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인사했다. 이날 공연은 사전에 방청권이 모두 배포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전문대학 EXPO를 찾은 관람객의 흥을 돋우는 데 크게 일조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번 전문대학 EXPO의 주목해야 할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연프로그램이다. 전문대학 EXPO가 열리기 전부터 화제를 모은 UCC와 브랜드송 공모전을 비롯해, 전문대학생의 넘치는 끼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오디션인 <전문대학 STAR 시즌3>가 펼쳐졌다. 두 번째 날인 7월 31일 오후 3시에는 전문대학의 성공시대를 알리는 UCC와 브랜드송 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 관람이 행사장 내 중앙 무대에서 펼쳐졌다. UCC 공모전에서 서울예술대학교의 'Three kings'가 대상을 수상했고, 대구과학대학교의 '뜨끈한 된장찌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브랜드송 공모전에서는 첫날 공연한 동아방송대학교의 정국영 학생이 대상을, 서해대학교의 '하모닉스'와 경북대학교 허성현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지막 날인 8월 1일 오후 3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전문대학 STAR 시즌3' 본선무대는 공연을 통해 전문대학생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전문대학생의 꿈과 끼를 거두는 오디션 본선에는 6팀이 참가해 각자의 재능을 뽐냈다. 백제예술대학교의 남녀 듀오 '더 헬릭스'가 발랄하고 상큼한 자작곡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연성대학교의 대표 응원단 '금빛새'가 화려한 응원 퍼포먼스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실력있는 참가자들은 훌륭한 연주를 곁들인 노래, 신나는 랩, 가창력이 돋보인 감미로운 발라드, 흥겨운 댄스곡과 매력적 댄스·랩의 조화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쳐 관람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수상자

● 브랜드송 공모전 수상자

대 상 : 동아방송대학교 - 정국영
최우수1 : 서해대학교 - 하모닉스
최우수2 : 경북대학교 - 허성현
우 수 : 서울예술대학교 - 온새미로
입 선1 : 세한대학교 - 유인
입 선2 : 영남이공대학교 - 전현영
입 선3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텐저린

● UCC 공모전 수상자

대 상 : 서울예술대학교 - Three kings
최우 수 : 대구과학대학교 - 뜨끈한 된장찌개
우 수 : 우송정보대학 - 힘든복학생
입 선1 : 한국방송예술진흥원 - ImagineFly
입 선2 : 대원국제학교 - 지송빠레
입 선3 : 명지대학교 - S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꿈의 발산과 희망 수렴, 창조적 미래를 만나다

EXPO
Dream
High⁰³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동시 개최,
입시전문기관 진학사 주최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통해
전문대학 입시정보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기회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그 기간 동안 바로 옆 C1 홀에서는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입시정보 전문기관인 진학사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입학정보 박람회는 전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알찬 입시정보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시 선발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정보에 목말라 있던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을 준 행사였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가다리던 행사



“와 보길 잘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정보가 넘쳐나네요. 유망한 미래 직업도 체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학과의 입시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벌써 다섯 개 학교에서 입학상담을 했네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왔다는 학부모 이은희 씨는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이하 전문대학 엑스포)’와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이하 입학정보 박람회)’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대학은 특성에 맞는 전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입시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전체 전문대학 모집정원의 84.1%인 18만 1106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정보에 대한 갈증이 더 컸다는 것이 이 씨의 이야기이다.





직업체험, 입시정보, 그리고 전문대학의 모든 것



이번 전문대학 엑스포는 입학정보 박람회와 함께 열려 더욱 의미가 크다. 입학정보 박람회를 주최한 진학사는 이미 정시 기간 동안 11회 연속으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는 입시정보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수시모집 입시정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입학정보 박람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첫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험생은 자신에게 적합한 전문대학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대학 엑스포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바로 옆 입학정보 박람회에서 입시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국내 최대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인 전문대학 엑스포에서 현재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K-POP 스타, 셰프, 간호사, 승무원, 컬러리스트, 카레이서 등의 각종 직업체험은 물론,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3D프린터, 첨단미디어, 가상현실, 전기자동차, 로봇, UHD TV, 원격교육까지 만나볼 수 있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수험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한 후 **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하니, 더욱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할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다수의 우리나라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행사가 펼쳐졌던 것이다.

대학과 학과 소개, 1:1 수시 입학상담까지



이번 입학정보 박람회에는 전국의 62개 전문대학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각 부스에서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자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각 대학 교직원들은 부스에서 1:1 입시 상담을 진행해, 수험생들은 수시모집과 관련된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총장이 직접 나서서 호응을 이끌어낸 학교도 있었다. 이호성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강성락 신안산대학교 총장 등은 부스를 찾은 학생들에게 직접 대학 소개를 하며 신뢰감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제가 원하는 학교는 면접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점수 얻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인천의 한 수험생의 이야기는 이번 입학정보 박람회가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이번 입학정보 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은 형식적이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단순한 입시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가 교직원들이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성 높은 신뢰감 있는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을 통해 전성시대를 열려고 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대입 합격의 비결을 알려준 이번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2016학년도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참가 대학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대경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동원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일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news

전문대학과 엑스포의 자긍심을 널리 알리다

엑스포 학생기자단 활동

●

엑스포 박람회장을 누벼라! 전문대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구성된 학생기자단이
올해 엑스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총 31명의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엑스포의 막이 내린 8월 6일까지 활동하며
전문대학 최대의 축제인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와 전문대학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학생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는 전문대학 엑스포 홈페이지(<http://expo.kcce.or.kr>)와 기자 교육을 맡은
매일경제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mk.co.kr>)에 실렸다. 학생기자단의 우수 기사를 지면에서도 만나보자.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학생기자단

강민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광고제작과, 박솔임 경북대학교 의료미용학과, 김미혜 배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소연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김예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광고제작과, 김용주 대림대학교 건축과, 김진호 유한대학교 기계설비과, 김채현 배화여자대학교 경영과, 김형국 동양미래대학교 기계설계과, 김혜연 한양여자대학교 비서인재과, 김혜원 배화여자대학교 중국비즈니스과, 김호규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관리학과, 박용민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관리학과, 박희서 연성대학교 실내건축과, 서현호 한국영상대학교 영상촬영조명과, 서혜민 장안대학교 법률행정과, 신지연 농협대학교 협동조합산업과, 양혜선 한양여자대학교 비서인재과, 엄태환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관리학과, 윤소원 오산대학교 관광외식사업과, 윤예린 한양여자대학교 영어과, 이나영 한림성심대학교 의무행정과, 이진양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장승민 안산대학교 디지털정보통신과, 정수빈 동아인재대학교 응급구조과, 조수영 동양미래대학교 기계공학과, 차예진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최지현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한승호 동양미래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홍세빈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예술경영전공, 황주영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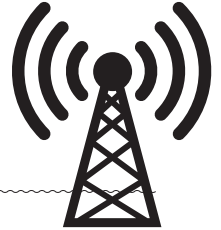
news

엑스포 학생기자단



전문대학인의 성공시대... 전성시대 열린다!

글_황주영 학생기자(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못된 고양이, 디자인일어소시에이츠, 우아한 형제들
위 세 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길 가다 봤거나, 현재 사용 중이거나, 귀에 익숙한 업체들일 것이다. 놀랍게도 위 업체들은 모두 전문대학인이 창업한 업체로써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학벌을 뛰어넘는 전문대학인의 성공시대!

2015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학벌 중시 풍조가 일고 있다. 학생들은 소위 SKY 대학에 진학하려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학부모들은 고액 과외를 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의 적성은 맞고 성적에 맞춰 유명 대학에 진학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살려 성공 한 전문대학인들이 있다.

기사 서두에 설명한 못된 고양이 양호진 대표, 디자인일어소시에이츠 김영진 대표,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그들이다. 이들이 처음부터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학벌 관련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디자인일어소시에이츠 김영진 대표에게 위 세분을 대표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다. 우선, 학벌 사회 대한민국에서의 전문대학 출신으로써 어려움과 고난을 물어보았다. 김대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문을 두드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답했다.

우선, 학벌 사회 대한민국에서의 전문대학 출신으로써 어려움과 고난을 물어보았다.

김대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문을 두드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답했다. 채용공고에서부터 전문대 출신들의 문을 가로 막고 있으니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학벌을 뛰어넘기 위한 김영진 대표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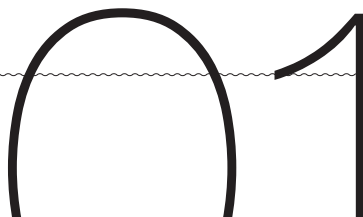
"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되는 또 다른 교육(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같은 입장에서 시작하는 경쟁자 또는 동반자로 주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회생활 시작 후 주변의 많은 것들을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뒤 늦게 중,고교 시절 학업에 투자하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무식하게 주어진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보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중요한 전환점이 왔을 때 느꼈습니다. 내가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문대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해서 사회 진출을 바라보는 전문대학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김대표는 "세상은 톱니바퀴처럼 구성되어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만 생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일 이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일에 오랜 시간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에서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먼저 상대를 존중 할 때 그 상대를 내가 가질 수 있고 나 또한 상대에게 존중 받는다 생각하고 항상 나를 가장 뒤에 놓으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지 않습니다. 존중과 인정과 가치는 순서가 없습니다."라며 당부했다.

미래를 위한 전문대학교의 노력

앞으로 변화할 사회에 대비하여 전문대학교 차원에서의 노력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위치한 영남이공대학교에서는 올해 2회째를 맞는 전국 전문대학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대학 교육의 특성인 산업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독려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그리고 못된 고양이 양호진 대표와 디자인일어소시에이츠 김영진 대표의 모교인 인덕대학교는 창업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는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각 전문대학교는 전문대학교의 교육 이념에 맞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 사회에 배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인재 배출을 위해 전문대학교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news

엑스포 학생기자단

전문대학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글_김용주 학생기자(대림대학교 건축과)



news

엑스포 학생기자단

전문대학이
우리 동네
복덩이

글_강민지 학생기자(동아방송예술대학교 광고제작과)

현재 대한민국에는 2014년도 기준 137개의 전문대학이 존재한다. 전문대학이란 함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최근 전문대학은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대학을 지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World Class College)” 선정 사업 등을 진행하여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에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본 전문대학을 직접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난 11일 전문대학에 대한 생각을 20명의 대림대학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가 가장 높은 40%,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실무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30%, “각종 장학제도로 인해 혜택이 많은 것 같다.” 25%, “잘 모르겠다.” 5%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4년제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가장 높은 60%, “취업이 잘 되는 것 같다” 20%, “잘 모르겠다.”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2/5를 점하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학력 지향의 국민적 의식구조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고용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기하면서 교육내용을 현장형 교육으로 내실화하여 산업인력양성중심대학으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사회 도래로 기능위주의 직업훈련은 그 비중이 줄어들고, 학력 수준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이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문대학만의 경쟁력 증가와 내실을 다져야 한다.

‘잠실은 롯데가, 포항은 포스코가 먹여 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는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사회 관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요즘 전문대학이 지역사회관계 속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전문대학과 지역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먼저 전문대학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볼 수 있다.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학 축제는 물론 전문대학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그 예로 안성시에 위치한 동아방송예술대는 방송예술에 특화된 대학으로 상대적으로 경기도 내 문화시설이 부족한 안성시민들에게 문화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학생들이 직접 공연하여 재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올해 동아방송예술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2015 디마빅쇼’에서는 설운도, 장윤정, 바다 등 유명가수들이 함께 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는 전문대학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전문대학은 계속되는 취업난 속 꾸준한 취업을 상승세를 보이면 성장해왔다. 137개(2015년 기준)의 전문대학에서 매년 20만명이 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는 2015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문대학 총 지원자는 154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만 명이 증가하였고, 경쟁률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은 실무 위주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전공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하다. 전문대학의 인기와 성장은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의 소비로 대학로를 형성하고 인근 상권을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가져온다.

대학과 사회의 상생은 교육 중시가 심화되는 만큼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대학과의 상생은 또 다른 강점을 가지며 그 영향을 넓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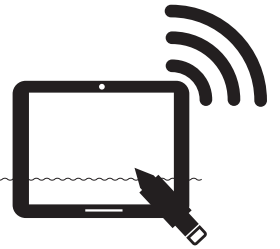
news

엑스포 학생기자단



첨단 기술 시대의 굶지 않은 복권, 전문대학!

글_윤소원 학생기자(오산대학교 관광외식사업과)



“

저희 전문대학은 세계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며 학생들의 학업 열기와
교수님들의 교육 열정으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합니다.

”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 다들 식상할 만큼 자주 들어봤을 대학들의 간판 멘트이다. 이 멘트의 내용처럼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세계 순위 안에 손꼽힐 정도로 높은 IT, 첨단 기술의 발전 수준을 자랑한다.

첨단 기술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각국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정보 통신 산업은 21세기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방송 장비, 컴퓨터, 화상 전화 등과 같은 제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인터넷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를 해 주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사실상 일반 대학들보다 전문대학들의 취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2~3년제 대학에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학과 또는 학부들이 더 많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실용적이고, 더 빠른 기간 안에 수료하여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전문대학들의 목표이자 비전이다.

물론 일반 대학들에도 공과대학들이 설립되어있고, 그들은 좀 더 오랜 기간 공부하며 심도 깊은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또한 오래 전부터 미국 MIT공과대학이나 스텐포드 대학교 같은 대학들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연구 결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많은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자신의 학교로 섭외하여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나 심도 깊은 교육을 좀 더 오랜 기간 배우고 익히는 교육방법보다 실제 작업 현장과 같은 공간에서 실전처럼 연습하고, 투입된다면 교과서적인 공부보다 훨씬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전문대학들은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21세기에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요즘 전문대학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습을 통해 그들이 실제로 결과로 보여주면서 전문대학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대학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달려 온 것처럼 현재에서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끄는 숨은 진주와 같은 학교들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4년제 유명 대학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열정과
도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지난 8월 1일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에서
〈브랜드송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정국영 학생.
특히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았다. 교수진부터 학생들까지
경쟁력 있는 학교에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그를,
멜로디 가득한 교내
작업실에서 만나보았다.

EXPO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브랜드송 공모전〉 대상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정국영 학생



BRAND SONG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열정이 만들어낸 하모니

어설프지만 발랄한 동작들, 풋풋한 대학생들의 경쾌한 멜로디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참석자들은 흥에 취해 어깨를 들썩이기가 하면, 박수를 치며 노랫말을 따라 부르기도 했다.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의 개막식은 여느 축제 못지않은 신명나는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

행사의 흥겨움을 선물해준 이가 바로 <브랜드송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정국영 학생이다. 또한 공연을 함께한 이들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친구들로, 댄스와 흥겨운 무대를 만들어주었다.

"처음 교수님의 추천으로 브랜드송 공모전에 참가하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사를 쓰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죠. 수상자 공지가 뜬 날에도 선뜻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동생에게 부탁했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보컬을 맡아준 친구와 곡부터 댄스까지 관심을 갖고 지도해준 김건 교수님, 그리고 함께 공연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국영 학생은 수상 소감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덧붙여 "실용음악계열에서 우리 학교는 교수진부터 교육과정, 심지어 학생들의 수준 또한 매우 높기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라며 실용음악학부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실용음악학부, 특히 정국영 학생이 속한 작곡전공 수업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뮤지션을 양성하는 명문학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음악가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전문성 습득은 물론, 전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부문별 실무능력을 강화해 현장 교육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다.

"음악을 통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공부한 뒤 동아방송예술대학교로 재입학한 정국영 학생. 그의 열정은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남아 작곡에 힘쓰는 것은 물론, 작업 중인 곡만 20여 개에 달할 만큼 뜨겁고 격렬하다.

"아직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많지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큰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원대한 포부,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그의 열정은 뜨거운 여름벌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 더욱이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음악적·문화적 실용경험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 속에 그의 꿈은 현실과의 갭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 덧붙여, 실용음악학부의 프로그램은 강의, 실습, 세미나, 팀 프로젝트, 합주, 무대연주 등의 유기적 환경을 조성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국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전문 음악인의 수준을 웃도는 알찬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국내 음악을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실용음악계의 명문다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남다른 열정으로 꿈을 향해 정진하는 정국영 학생. 이들이 만들어낸 하모니가 결국 브랜드송 공모전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 및 음악산업을 진두지휘할 미래의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해본다.♡

tip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는?

문화산업과 음악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음악콘텐츠를 창조하는 음악프로듀서와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실용음악의 저변을 넓히는 음악강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특히 작곡 전공분야는 지식, 기술, 태도는 물론 인문학적 소양과 기획력과 창의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21세기 글로벌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갈 창조적 음악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한편, 졸업 후에는 진로작편곡가, 음악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음반기획자, A&R, 영화음악가, 뮤지컬 음악감독, 게임/CF/모바일/멀티미디어콘텐츠 작편곡가, 실용음악학원 강사, 방과후 학교 교사, 음악교육가 등으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생각의 틀을 넘어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UCC 공모전〉 대상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과
김민철, 김성연, 김태오 학생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가 열린 삼성동 코엑스. 축제의 현장 속에 누구보다 함박미소를 머금으며 기쁨을 만끽한 이들이 있다. 영화 〈취권〉을 패러디한 동영상 〈취업권〉으로 UCC 공모전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과 김민철, 김성연, 김태오 학생이 그 주인공들이다. 창작의 재미와 짜릿한 성과를 통해 꿈을 향한 날갯짓을 이어가는 그들을 교정에서 만나보았다.



EXPO





실습 위주의 수업과 실전같은 경험
전문대의 우수한 인재양성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실습교육, 꿈을 향한 밑거름이 되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던 8월의 첫날, 코엑스를 중심으로 삼성동 일대는 불볕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신선한 볼거리와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 <UCC 공모전>은 참석자들의 웃음과 박수갈채를 끌어 모으며 열기를 더했다.

“대상 소식을 접할 때에도, 수상하는 순간에도 기쁨보다는 덤덤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상에 대한) 기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대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작업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 노력했을 뿐인데, 도움을 주신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광고창작과 친구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얼떨떨하다며 김성연 학생이 들려준 수상 소감이다. 간략한 소감 속에 드러나듯 실제 그들이 추구하는 영상은 '재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잡고 있다. 이번 UCC 작업 외에도 29주 영화제를 비롯해 광고영상,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던 그들의 모든 작업물이 이를 대변한다. 그래서 더욱 대상이란 값진 성과를 얻은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을 줄인다. 사실 이들에게 수상이란 꿈을 이뤄가는 신나는 여정 중에서 만나는 소중한 선물에 불과한 듯했다.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촬영과 편집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 이를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학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태오 학생은 “창작의 즐거움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이뤄가는 배경에는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과만의 특별한 교육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과는 생각의 틀이 없는,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창작의 여건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때 할 수 있는 작품들, 이를 테면 심의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파격적이며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죠”라고 강조한다. 덧붙여,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과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실무 그대로의 작업환경을 통해 현장 전문가의 숨결을 자연스럽게 교육·습득하고 있다.

“영상 관련 창업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학업 분위기는 이들 삼인방의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주차장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길가 잔디밭을 각종 영상의 메인 무대로 만들어내는 그들,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유연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들, 세 친구들은 이미 UCC공모전 대상을 넘어 미래의 새로운 영상을 주도할 인물들로 부족함이 없다.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실무를 접한다해도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며 입을 뗀 김민철 학생은, 이어서 “졸업 후 영상 관련 사업(창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고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이며 파격적인 영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틀을 깬 자유로운 발상, 신선한 아이디어를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 나아가 꿈을 향한 넘치는 자신감을 보유한 그들. 물론 사회에 발을 디디며 겪어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은 숙제처럼 남아있다. 하지만 프로 못지않은 기술력을 지닌 그들이기에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해본다. 더불어 대상 수상에 대한 아낌없는 축하를 전한다.👏



tip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학과는?

숨겨진 예술혼과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발상에서 독창성을 함양하고, 한국적 소재로 광고표현을 함으로써 차별화된 프로 광고인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의 요구조사와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광고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과 실기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계획으로 '마케팅을 아는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를 아는 기획자'를 양성, 멀티플레이어 광고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광고 창작인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분야로 디지털 미디어와 첨단기기를 활용할 줄 알고, 다양한 예술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시대에 적용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UCC

끼와 재능,

열정을
입다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전문대학 STAR 시즌 3〉 대상

백제예술대학교 미디어음악과
‘THE HELIX’
황선영 · 최현석 학생



THE

유쾌하고 매력적인 언밸런스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마지막 날, 행사장 중앙 무대가 ‘전문대학 STAR 시즌3’의 열기로 점차 뜨거워지고 있었다. 참가자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순서로 백제예술대학교의 혼성 듀오 ‘THE HELIX(더 헬릭스)’가 등장했다.

키 차이가 30cm는 충분히 될 것 같은 두 사람. 가녀린 여학생 황선영 씨와 듬직한 남학생 최현석 씨의 조합은 등장만으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황선영 씨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고주파 아기동자녀’로 출연했을 만큼 특색 있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은 딱 거기까지였다. 두 사람이 부르는 달콤 상큼한 사랑노래는 듣는 이를 매료시키고 흥겹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THE HELIX’ 이름과 가사가 적힌 팻말을 든 응원부대가 등장했다. 최현석 학생의 부모님과 동생 등 가족과 친한 지인들이 함께와 열띤 응원을 펼친 것이다. 그 응원소리만큼 두 사람의 노래는 더 설득력 있게 관객의 마음속에 내려앉았고, 두 사람은 결국 대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함께, 함께해서, 함께였기에

그날 수상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제 활동 닉네임입니다. 원래는 HELIX 성운에서 따온 거구요. 사람의 눈을 닮은 이 성운은 ‘신의 눈’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성운 모양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몽환적이어서 제 활동 닉네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최현석 학생의 개인 닉네임은 그대로 팀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팀 이름처럼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라는 미덕 덕분이다. 먼저 ‘전문대학 STAR 시즌3’에 참가한 계기가 특이하다. 역시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왕궁소녀’ 팀이 최현석 학생과 같은 백제예술대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들로부터 이 대회에 대해 듣게 됐다.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고 시도하는 중이었던 그는, 좋은 기회가 될 듯싶어 대회 참가를 결심했다고 한다. 또 대회 당시에는 응원단의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많이 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황선영 씨와 호흡이 잘 맞았던 것이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가져왔을 것이다.

“작업실에서 밤을 새 때였습니다. 제가 웹서핑을 하던 도중 화성인 프로그램을 봤는데, 마침 선배가 나온 편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신기해서 관련 동영상을 보니까 슈퍼스타K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페이스북으로 찾아 봤는데 저희 학교 같은 과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연락을 드려서 같이 곡 작업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14학번 최현석 학생은 같은 백제예술대학교 미디어음악과를 다니지만, 황선영 학생이 12학번 선배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대회 참가를 생각했을 때 같이 한 번 듀엣으로 이 대회에 나가보자고 얘기했고, 황선영 학생이 찬성해 함께 듀오를 결성하게 됐으며 웃는다.



HELIX

중독성 있는 노래와 꼭 맞는 목소리, 그 뒷이야기

“초중고 때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막내인데, 나이 많은 언니들과 함께 자라다 보니 채널 선택권이 없었어요. 언니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 많이 지켜봤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저도 노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만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고주파 아기동자녀’라고 소개된 것처럼 황선영 학생의 목소리는 한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기싱 콩꼬또(귀신 꿈꿨어)’라는 애교가 가장 어울릴만한 목소리라는 확신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노래를 만나, 확실한 인상을 남겼다. 혹시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만든 곡일까? 외모로 인한 선입견과 달리, 황선영 학생이 최현석 학생의 선배라는 것 이상의 반전이 숨어있었다.

“곡은 사실 저희가 만나기 전에 제가 작년에 써놔던 곡입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랑 ‘썸’을 탈 때 즐거웠던 마음을 담았던 곡입니다. 작사·작곡·편곡 다 직접 제가 했어요.”

기성 작곡가가 만든 노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만한 곡이 최현석 학생의 자작곡이었다. 게다가 황선영 학생은 자신의 음색을 고려한 노래가 아니었음에도 맞춤 복을 입은 것처럼 빼어나게 열창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곡가가 꿈이었다는 최현석 학생. 그가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하던 일곱 살 때지만, 미디를 알고 활용하게 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도 꿈을 이루기 위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했다.

“대중음악 작곡을 하다 보니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장르가 케이팝인데요. 케이팝 위주의 수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미디어음악과가 케이팝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하여 지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최현석 학생은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면서 다 도움이 되는 수업들이었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공연 워크숍 수업이었다고 말한다. 이 수업은 작·편곡 전공이 보컬전공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연할 때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만드는 꿈, 그리고 강한 스타예감기

“TV에 나오는 것이 꿈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좋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꿈은 항상 어렸을 적부터 작곡가였기에 프로작곡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처럼 여러 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곡 작업도 많이 해서 여러 가수에게 곡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케이팝 보컬 전공 황선영 학생, 그리고 케이팝 작·편곡 전공 최현석 학생. 같은 백제예술대학교 미디어음악과를 다니지만 두 사람이 꾸는 꿈은 그들의 전공만큼이나 다르다. 천부적인 끼와 재능을 지녔고, 오랫동안 꿈꿔왔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 그들은 단지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꿈을 만들고 있다. 그 노력 때문일까?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강한 ‘스타예감’이 두 사람에게서 전해져왔다.👁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꿈 찾아 길 찾아 여기 왔어요!

Q&A

도움_ 한국교육심리학회
전국 진로상담교사협의회

Q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 적성검사 결과에서 교사, 심리학자 등의 직업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학을 위한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보고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옥영혜 한국교육심리학회

진로 선택 시에는 통합성, 생애성, 자기주도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로는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진로 적성검사 결과가 본인의 관심 분야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에서 나온 내용들이 평소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검사에 대한 소개 및 질문을 잘 읽고 응답을 했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인데도 그냥 응답한 것은 없나요?
- 2) 본인의 평소 모습을 솔직하게 그대로 응답했나요?
- 3) 본인의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요?

만약 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응답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준비가 된 후 검사를 다시 해 볼 수 있으며, 최소 2주의 시간이 지난 뒤 재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살펴보고 혼자서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면 검사결과를 가지고 학교의 진로상담선생님과 해석을 다시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응답을 했다면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던 숨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상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은 시기이다. 지난 7월 말 시작된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행사장의 한편에선 이런 고민을 담은 친구들을 위한 진지한 상담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조심스레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들려주는 선생님들... 이들의 상담 중 일부를 지면에 옮겨보았다.



Q

또래 친구들, 그리고 어린 동생들조차 자기의 꿈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반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지 등등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입시가 코앞인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최영아 한국교육심리학회

누구나 잘하는 것, 자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체제에서 우열을 가리는 시스템 속에 학습하다보니 위축되어 자신의 강점지능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거나 IQ가 월등히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다보면 소질 있는 분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내가 잘 하는 일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친구들에 친절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은 인간친화지능이 발달한 경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나의 행동, 나의 말 속에서도 강점지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돌이켜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강점지능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선택을 할 때 입시점수에 맞추거나 유망한 직종을 바라보고 진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 선택은 적성에 맞지 않는 진로 선택으로 이어져 사회생활 속에서 유능감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점수가 아닌 나의 강점을 바라보고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진로를 결정한다면 사회생활 속에서 유능감을 획득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꿈 찾아 길 찾아 여기 왔어요!

Q

고교 졸업 후 취업과 진학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전문대학에 진학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좀 더 쉽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김용문 홍대부고 교사

고교 졸업 후 취업과 진학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길 중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배움에는 때가 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과 형편의 제약으로 인해 학업에만 만전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진학 후 취업’을 그리고, 차선책으로 ‘취업 후 진학’을 권합니다. 지금의 직장인들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뿐입니다. 2050년 및 그 이후를 대비하는 청소년 및 고교생여러분은 평생학습의 정신과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을 먼저 하더라도 취업한 그 직장에서 고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싶거나, 더 나은 직장,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자격증을 더 획득하거나, 진학하여 학위를 따거나 해야 합니다.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평생학습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진학 및 “전문대학에 진학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좀 더 쉽다”는 말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장학금이 많은 대학도 많습니다. 둘째, 동종의 혹은 유사한 사업에 함께할 동지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셋째, 삶의 여러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평생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익히고 배운 전문지식도 없이, 고교졸업 후에 즉시, 현장취업은 젊은 날에 필요한 소중한 배움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지면에, 이토록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군요! 배움의 때를 기억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Q

전문대 EXPO를 방문하여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즘 트렌드답게 세프가 되어보는 것이 재미있었고 실제로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리학과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까지 다양하더군요. 전문대학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금우 영등포여고 교사



그대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나를 생각하고, 나의 정성을 생각하면서 마음 속 깊이 나의 진심을 음미한다면... 구수하고 때론 담백하거나 달콤하기도 하고 어느 때면 짭컌하지만 그 속에 진한 향이 배어 있는 나의 요리를 맛보고 행복해 하는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리를 하는 손은 거친 재료를 다듬고 다소 역한 냄새를 견디며 트고 베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요리를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그 삶 또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의 요리학과는 다양합니다. 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전문학교까지도 다양한 과정을 갖추고 있지만 세프의 진수를 맛보고 싶다면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실기와 이론의 전문적 식견을 넓히고 싶다면 4년제 일반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특화된 과정을 통해 요리의 마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리사 되려면 우선 조리기능사자격증 준비를 통해 요리의 기본기부터 익혀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실습 위주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당장이라도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장에서도 일반 대학보다는 이런 특성화된 전문대학 인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학과가 있는 2년제 전문대학교로는 호텔조리과, 호텔조리영양과, 관광호텔조리과, 관광외식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식품영양조리과 등이 있습니다. 대학교마다 자세한 커트라인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입시결과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겉신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식신이 되어 칼로리와 맛과 멋과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그 어떤 직업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성공하는 꿈을 위한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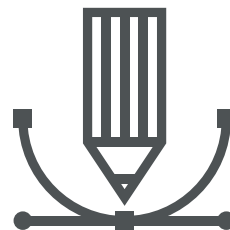
김용문 홍대부고 교사

미국 템플대학 창시자인 러셀 코웰 박사가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4,043명의 공통점 세 가지를 발견하였다고 하지요?

첫째, 목적이 분명하였다.
둘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셋째,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전망 좋은 직업과 관계된 학과, 그리고, 인생에서의 분명한 목적을 세울 때 필요한 이 귀한 나침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까요? 자신의 강점이나 소질,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자신의 역량에 맞게 진학 및 취업의 방향을 정해야 하겠지요?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겠지요?

Here





그와 같이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마음의 문을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열지를 고민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
지금과 여기(now and here)에 충실하라!

둘,
고민을 하더라도 일단은 역동적으로 일상의 과제를
해내면서 움직이라!

셋,
도서관에서의 독서를 통해(진로 및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책 중에서도 정기간행물실에 있는,
관심 분야 및 해당 직종의 전문잡지가 도움이 되겠지요?)
다양한 삶의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진로나 진학에 대한 도움도 본인이 충분히 능동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검토 및 비교하는 자기자신만의 준비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담임 선생님,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선생님 등 주변의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와의 상담내용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참고하느냐 하는 부분은 학생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달렸습니다. 진로의식 확립 및 진로 개척은 본인이 해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유효합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진로진학상담 교사는 좀 더 안목이 넓은 선배로서, 그리고 누구든지 조언자로 “여러분의 ‘결’을 기꺼이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생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자신의 ‘일상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도전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그냥하는 말로 흘려들지도 마세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승자의 비결이라고들 합니다. 박경철 씨의 《사골의사박경철의 자기혁명》의 일부를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청춘이란 발산이 아니라 응축의 시기다. 뜨거운 불길을 토하지 말고 배 속 깊이 삼켜라.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그런데 그 기회는 일정부분 행운과 함께 온다. 준비된 도전이 행운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실패는 가치 있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좌충우돌에는 기회도 행운도 없다.
방종에 대한, 대가는 가혹하다. 시행착오가 청춘의 특권이긴 하지만, 준비 없이 여기저기 부딪히기만 해서는
상처만 입을 뿐! 다음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운의 여신이 나만 피해갈 리 없고,
불행의 여신이 내 발 목만 잡을 리도 없다는 믿음이다.
인생은 정직한 것이다. 묵묵히 걸어가라. 결과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환영사
대회 조직위원장 대림대 남중수 총장

개회사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청춘의 꿈을 요리하다!

제1회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

Dream

전문대학 조리 전공 학생들이 세계 각국 외교 인사들에게 한식을 선보이는 셰프로 활동할 수 있는 꿈의 길이 열렸다. '제1회 전문대학 한식드림(Dream) 경연대회'가 지난 7월 9일 대림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요리에 대한 열정에 청춘의 열기가 더해진 뜨거운 현장,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수상자가 더욱 돋보였던 전문대학생들만을 위한 한식드림 라이브 요리 경연 대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글 장백지 사진 김민정





제1회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



눈으로 코로 느껴지는 열정, 라이브 요리 경연

전문대학의 한식 부문 우수 인재 발굴과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호텔조리과, 한식조리과 등 조리 특성화학과를 보유한 전문대학 총 22개 팀이 참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8개 대학, 충청·강원권 5개 대학, 부경·경북권 4개 대학, 호남권 5개 대학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 CJ제일제당, CJ푸드빌, 매경미디어그룹이 협찬을 맡은 이번 대회는 대림대학교 율곡관 7층에서 진행되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대회 조직위원장인 대림대 남중수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군장대 총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승우 회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수의 요리학교도 2년제인 만큼 우리 전문대학 조리학과 학생들도 집중적인 전문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한식드림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단순히 수상자를 가리는 경연을 넘어 지역별로 선정된 5개 금상 수상팀이 ‘한식드림팀’으로 선발되어 11월 미국에서 열릴 UN 주재 각국 외교 인사 만찬에서 한식 요리를 대접하는 셰프 사절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많은 요리 전문가들이 바라는 꿈의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까다로운 지정 메뉴

대회의 참가자들은 2인 1조가 되어 지정 메뉴(한식 어선 1품)와 한식 현대화 메뉴(주 요리 1품/후식 1품) 등 총 3종류의 요리를 2시간 30분 내에 조리해야 했다. 심사는 조리의 전 과정을 테스트하는 라이브 경연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가번호별 3곳의 경연 공간으로 나누어 진행된 라이브 경연은 대회 출전 학교의 관련자, 유명 협회 소속 등을 모두 배제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경연장을 돌며 조리 전, 조리 과정, 완성 작품에 이르는 3개 과정을 평가하였다. 또한 제철 식재료의 적절한 이용, 조리도구 사용의 숙련도, 조리 기술 응용, 식품 위생 준수 등 15개 평가 항목 중에서도 전통성과 창의성, 작품의 맛과 품미에 가장 큰 배점이 주어지는 방식이었다.

이번 대회의 지정 메뉴는 어선으로 어선은 결빙기엔 단순해보이지만 한식 요리 가운데서도 중상 이상의 기술적 숙련도를 요하는 까다로운 음식이다. 일정한 두께로 포를 뜨는 생선살 손질부터 찌는 과정에서 변형되는 생선살의 형태, 적당한 불 조절 등 변수가 많아 특히 섬세한 기술을 요한다.



한식의 우수성에 독창성 살린 작품들

이번 대회 요리들은 한글과 영문의 혼합인 '한식드림(Dream)'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한식의 특성과 우수성을 살리면서 서양식 창의가 가미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어설픈 한 가지 메뉴만 해도 다양한 소스가 접목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오곡참깨 겨자소스, 허브 잿크림소스, 샤프란 소스, 오렌지 소스 등 겹치는 레시피가 없을 정도였다. 또한 금상 수상자의 작품들은 한식 고유의 조리법과 풍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세계인의 입맛에도 맞는 서양식 조리법을 절묘하게 가미한 작품들이었다. 작품을 담는 그릇과 담음새 역시 심사 항목인 만큼 절제된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때로 과감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포인트를 준, 요리를 넘어선 예술 작품 같은 모양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금상 5개 팀, 은상 4개 팀, 동상 4개 팀을 선발한 심사 결과를 보면 지나친 서양식 조리법이나 화려함보다는 한식의 기본을 지킨 절제된 응용력에 더 큰 점수를 준 듯했다. 지역 통합 금상에 빛나는 경남도립남해대학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이 만든 초계탕은 한식 요리의 기본을 제대로 따른 깊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수원과학대학교 글로벌한식조리과 학생들이 만든 메뉴는 전통의 오방색을 주제로 한 숯불구이와 후식으로 '한식 전공자다운 쏘씨'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첫 대회에서 수상, 두 배의 기쁨

이번 대회는 첫 대회로서 대회와 관련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준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 참가자가 많았다. 대신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신들의 실력을 평가받았기에 수상자들의 기쁨은 두 배였다. 충청강원권 은상을 받은 혜전대 현용균 수상자는 "전 대회의 예시가 없는 첫 대회인데다 심사 기준도 까다로웠고 한식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조합하기가 어려웠지만 지도교수님들과 한 팀이 되어 열심히 준비했고 그동안 참가했던 여러 대회 중 가장 만족도 높은 대회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통합 금상 수상자 중 한 명인 경남도립남해대의 이소민 학생은 "한식의 세계화를 표현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궁중요리에 초점을 맞춰 요리를 풀어나가다 보니 첫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학생 신분으로 큰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어 무척 자랑스럽다."고 기뻐했다.



대회에 바람

통합 금상 수상자의 지도교수인 남해대 호텔조리제빵과 권오천 학과장은 "노력한 것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이나 그렇지 못한 학생이나 실력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조리학도들에게 우리 한식의 우수성을 심어주고,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심사의 공정성이 잘 유지된 훌륭한 대회로 앞으로 이런 심사 방법이 잘 유지, 발전하기 바라며 외국인 셰프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우리 음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부경경북권 은상 수상자의 지도교수인 호산대 호텔외식조리과 정우석 교수는 "대회가 방학 중에 이루어져 산학실습 중인 참가자 학생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라이브로 진행되는 것과 다른 디스플레이를 추가하지 않고 오직 음식에만 초점을 맞춘 점은 공정성이 었보였다"며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쇼 프로에도 조리사들이 출연할 만큼 사회적으로 조리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진 만큼 조리학과 학생들이 조리 연구와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다양하고 많은 미래의 직업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경연대회 조직위원장인 대림대 남중수 총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가 전문대학 교육의 성과와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한식의 풍미와 한식의 세계화를 주도할 미래 요리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대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한식드림 경연대회가 명실공히 대학생들의 최고의 요리 대회로 성장하여 대회 출신들의 탄탄한 미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회가 방학 중에 이루어져 산학
실습중인 참가자 학생들이 준비
할 시간이 부족한 점이 조금 아쉬
웠지만 라이브로 진행되는 것과
다른 디스플레이를 추가하지 않
고 오직 음식에만 초점을 맞춘 점
은 공정성이 었보였다"며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쇼 프로에도 조
리사들이 출연할 만큼 사회적으
로 조리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
진 만큼 조리학과 학생들이 조리
연구와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다양하고
많은 미래의 직업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청춘의
꿈을
요리하다!

Dream

제1회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전문대학, 성공시대

Campus News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는 전국 63개 전문대학이 참가하여 91개의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각 대학의 엑스포 참가 소식을 학교명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전합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의료보건계열 / 기타계열

우리 대학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에 참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전문대학 엑스포는 창조경제에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진정한 역량과 가치를 알리는 한편, 전문대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매우 큰 행사이다. 2013년부터 매년 참가한 우리 대학은 지난해보다 한 개 부스를 확대해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 2개 학과가 참여해 '간호사 체험'과 '유아교사 체험'을 선보였으며, 행사기간 내내 참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동대학교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직업체험관 문화예술 구역에 패션디자인과가 참여해 관람 학생들에게 ▲학과 소개 ▲패션쇼 영상 관람 ▲패션악세서리 제작 체험 ▲입학상담을 통해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학부모에게 패션디자인 분야의 진로·직업 체험 및 입시정보를 제공했다. 패션디자인과 김지영 학과장은 "우수 전문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번 박람회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우리대학 직업체험 부스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패션디자인분야의 직업체험과 입시 홍보로 우리대학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윤 총장은 "이번 박람회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 수험생들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26개 학과 소개와 입시정보, 진로상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관광대학교

관광레저계열

우리 대학은 직업체험 부스에서 카지노관광과의 룰렛게임을 시연하며, 젊은이들의 꿈과 끼를 살린 직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다. 우리대학 카지노관광과의 교육 목표는 Table Game(룰렛 게임, 블랙잭 게임, 바카라 게임)의 이론 및 기술, Non-Table Game(각종 머신게임)의 운영 및 관리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카지노 산업 분

야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기술을 함양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관광호텔분야의 학과에서는 호텔기업과 리조트 기업을 찾는 여러 계층의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요구 및 기대를 만족하게 할 기초 지식 및 서비스 기능을 바탕으로 식음료 부문과 객실 부문 및 부대 영업장 서비스 진행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공학기술계열

우리 대학은 3D 측정시뮬레이터 및 3D 프린터 등을 운영해 학생들이 설계에서 가공까지 일련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휴머노이드 작동 및 자동화시스템 체험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유망주인 중·고교 학생들에게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비전 제시 △직업교육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잠재적 수요 창출 및 선호도 제고 △직업교육 및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대학교

뷰티계열 /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은 최근 주목받는 유망 직업인 임상병리사와 뷰티매니저, 스킨테라피스트 등 3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건의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임상병리과는 임상병리에 사용되는 각종 첨단장비를 소개하고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 또 뷰티매니저과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연출 등 뷰티매니저가 담당하는 역할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약손피부미용과는 피부분석을 통해 피부 관리를 돕는 스킨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북대는 이번 EXPO를 위해 연인원 200여 명을 투입해 2개의 부스를 운영했고 사흘 동안 1천200여 명이 부스를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용예술학부 김수미 학과장은 “각종 검사장비를 활용하고 학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두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균형측정 및 훈련체험, 보행분석 장비를 활용한 참석자의 보행 패턴 분석 및 결과 해석 등을 체험하게 하여 직업관에는 행사기간 내내 엑스포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교육관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대학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금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주목 받는 등 전문대학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경인여자대학교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아동미술과, 패션문화디자인과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엑스포에 참여했다. 아동미술과는 페이스페인팅/손수건과 다용도 주머니 꽃물들이기/레고 팔찌 만들기 체험관을, 패션문화디자인과는 가죽 끈으로 팔찌 만들기 등 패션 액세서리 체험관을 꾸몄다. 우리 대학은 예비수험생들에게 직업체험 기회 제공은 물론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관람객 모두 함께 참여하는 20주년기념관 컬러링 스케치 이벤트를 통해 완성된 미술작품을 선보였고, 알리미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물티슈, 실리콘 컵, 파우치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밖에 우리 대학 가이드북이나 경인나래 등도 제공하며, 학교 홍보동영상도 상영했다.



경민대학교

식품계열 / 관광레저계열 / 기타계열

우리 대학은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에 아동미술지도과, 아동독서지도과, 항공서비스과, 관광레저스포츠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관광경영과 총 6개 학과가 참가했다. 아동미술지도과와 아동독서지도과는 전통부채 그림 그리기, 책갈피 만들기를 비롯하여 미술심리검사 진단 및 창의미술 체험을 도왔다. 항공승무원과는 항공승무원 이미지메이킹을, 관광레저스포츠과는 골프·스킨스쿠버 체험을, 호텔외식조리과와 호텔관광경영과는 팔빙수 만들기, 바리스타 체험으로 엑스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경북전문대학교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은 독창성과 특징을 비롯해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알 수 있는 대학홍보관에 참가, 대학의 특성화 및 운영학과 소개와 진학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대학홍보물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경북전문대학교 물리치료과는 실제 병원현장과 동일한 전문 물리치료측정기구로 다양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실감나는 직업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균형측정 장비를 활용한



광주보건대학교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 치위생과는 ‘덴탈 톡’ 구강관리체험을 통해 치아우식증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구강건강관리법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치과분야에 대한 이해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큰 각광을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김경태 기획처장은 “호남지역 최고의 보건대학으로서 보건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광주보건대학교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의 우수성 소개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대학교

뷰티계열

우리 대학은 뷰티계열 네일아트 체험관을 진행하였다. 이번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에 참가한 우리 대학 체험관에서는 한동조(뷰티디자인계열)교수와 전공학생들이 EXPO에 방문한 학생들에게 네일아트 체험을 시켜주며 입시상담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학생들은 뷰티디자인계열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어 만족도가 높았다. 체험관에 참가한 뷰티디자인계열 한동조 교수는 “네일아트체험을 통해 중, 고등학생들에게 뷰티산업과 진로 등의 환경을 이해시키고 전공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는데, 커피바리스타과에서는 평소 보기가 쉽지 않은 커피나무와 각국의 커피생두를 전시하였으며, 샌드 로스팅 및 드롭커피 내리기 체험을 통해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였고, 호텔관광과에서는 다양한 카테일 만들기 체험 및 시음을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자원과에서는 학생들이 개발한 건강차 전시 및 건강차 만들기과 시음 체험을 실시하였고, 패션·주얼리과의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퍼포먼스를 보임으로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익환 교수(커피바리스타과 학과장)는 “전문대학 EXPO를 통해서 학생들은 생생한 교육 현장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습득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대학은 선의의 경쟁자로서 각 대학들이 어떻게 수요자 중심의 학과 운영을 준비하고 교육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NCS중심의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뜻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포대학교

식품계열 /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이번 엑스포에서 특성화 학과 및 직업 체험으로 행사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본 행사에서 호텔조리과, 호텔경영과, 실용음악과, 시각디자인과 총 4개 학과가 다양한 직업체험(핑거푸드 체험, 무알콜 칵테일 제조, 이미지합성, 전문미디를 활용한 음반제작 등)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였다. 특히 최근 각종 매체에서 선호하는 직업 1위를 차지한 요리사(세프)가 대중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에 걸맞은 체험을 선보였다. 직접 위생장갑을 끼고 각종 재료들로 초간단 핑거푸드를 만들어 바로 시식까지 하는 호텔조리과 직업체험을 위하여 늘어난 학생들의 행렬로 큰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군장대학교

식품계열

우리 대학은 식품 및 뷰티계열인 커피바리스타과, 호텔관광과, 농식품자원과, 패션·주얼리디자인과가 참가하여 하였다. 각 학과에서는 군장대학교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알리고,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 및 취업에서 더 나아가 창업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교육지원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엑스포 참여 학과에서는 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



구미대학교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이 엑스포 직업체험관에 참여한 디지털컨텐츠과는 ‘캐릭터 디자이너’ 부스를 마련해 캐릭터 디자인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디지털컨텐츠과 학생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캐릭터 그림을 배지로 만들어 선물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부스를 방문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대사 키우미 학생들은 우리 대학 안내책자를 배부하며 학교를 홍보했다. 김준영 학과장은 “캐릭터산업은 창조적 문화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하고 “이번 직업체험관 부스 참여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미래를 설계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공업대학교

뷰티계열

우리 대학은 피부&네일미용 전공에서 '레인보우헤나 및 칼라링헤나 디자인 문양사'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이 학과는 피부와 네일 미용의 복합 전공을 통한 멀티 뷰티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뷰티아트디자인계열의 전공 중 하나이다. 외모를 꾸미고 관리하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한번쯤은 해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뷰티아트디자인계열 재학생들이 헤나디자인과 시술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체험 참가 학생들의 팔에 직접 시술을 하여 좋은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전문대학 엑스포를 통해 우리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적 능력 개발과 진로 및 직업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과와 대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미래 직업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림대학교

공학기술계열 / 관광레저계열

우리 대학은 기계과와 항공서비스과 등 2개 학과가 참가해 중·고등학생에게 진로상담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기계과에서는 실용적 직무교육을 위한 3D 프린터 활용기술을 체험함으로써 기계공학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항공서비스과는 항공승무원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해 승무원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실제 항공승무원을 유니폼을 입은 채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항공서비스과 1학년 김다혜 학생은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과거에 대림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입시 준비했던 모습이 떠올라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학기술계열

우리 대학은 컴퓨터공학&그래픽과와 의료기기과가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해 수험생들에게 첨단공학도로서의 꿈을 제시해 주었으며 각각 가상현실시뮬레이터, 체열진단기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컴퓨터공학&그래픽과에서 운영한 가상현실시뮬레이터는 산·학 공동으로 개발된 게임기이며 내부 조작에 따라 360도까지 회

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의료기기과에서 운영한 체열진단기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기기로서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통증이나 질병 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를 컬러 영상으로 나타내준다. 이밖에도 Z-BIKE, 인바디 등을 운영하여 체험을 원하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체험을 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해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었다. 정영선 총장은 "이번 체험 부스 운영이 학생들이 직업을 미리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박람회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보건대학교

의료보건계열

보건·산업계열 특성화 전문대학인 우리 대학은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치기공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다양한 치과 보철물 및 치아 모형들을 전시하고, 행사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직접 치아모형을 제작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진학을 앞둔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및 입학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상승시켰다. 우리 대학은 매년 보건의료 국가시험에서 전국 평균보다 10~30%가량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특히 전국 수석으로 6년 연속 배출해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 선두 주자로서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동남보건대학교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은 전문대학 EXPO에 의료보건계열 2개 학과가 참가하였다. 응급구조과는 '4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폐소생술 체험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체험을 실시하였다. 사회가 점차 산업화·도시화 되면서 교통사고, 재해, 급성질환 등의 증가로 인해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학부모, 교사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안경광학과는 시력검사와 안광학기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최근 산업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보건 의료계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각종 대중매체와 컴퓨터 등의 사용으로 현대인의 시력악화현상은 국민 보건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안경광학과는 유망학과로 떠올랐고 이번 행사에서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하기도 했다. 또한 개막식 축하공연은 브랜드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리 대학 실용음악계열 1학년 정국영 학우가 같은 학과 학생들과 함께 출연해 대상 수상곡을 열창하여 관람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방송과 예술분야의 특성화 전문대학에 선정된 우리 대학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주도하며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현장실무 중심의 특화된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전문대학 성공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임을 강조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동양미래대학교

공학기술계열

우리 대학은 전기, 기계, 로봇 공학을 결합하여 제작한 '휴머노이드 댄스 로봇'을 출품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조정해볼 수 있는 체험관도 운영하였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센서와 모터를 활용하여, 사람처럼 걷거나 물체를 잡을 뿐 아니라 춤을 추는 동작을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이번 전시회 및 체험행사를 통해, 로봇을 제작한 로봇자동화공학부 학생들이 동작원리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람자들이 스스로 로봇을 동작시켜 봄으로써 로봇제어라는 어려운 주제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평가 인증대학', '특성화 우수 전문대학', '수도권 취업률 우수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수탁대학', '캠퍼스 CEO 육성사업대학' 등의 성과 홍보, 기념품 배포, 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1:1 입시상담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원대학교

뷰티계열 /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은 보건운동관리전공과 뷰티디자인계열이 참가하였다. 의료보건계열과 뷰티계열 등 총 2개 부문에 '건강지킴이'와 '뷰티아티스트'의 슬로건을 내걸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건강지킴이' 보건운동관리전공은 각종 최첨단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질병 예방방법과 체력측정, 건강검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점차 사회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창의적 실무능력이 뛰어난 뷰티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뷰티아티스트' 뷰티디자인계열은 헤어아트와 스킨케어 실습체험을 제공하였다. 미용에 관심 있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특히 여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전문대학 엑스포에 참여한 뷰티디자인계열 도우미학생은 '다양한 현장교육 실습을 통해 갈고닦은 서비스를 맘껏 제공할 수 있어 동원대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은 느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현장경험을 쌓아 졸업 후 바로 뷰티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국내 최대의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인 전문대학 EXPO에 참여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먼저 개막식 후 내외빈 일행은 우리 대학 부스를 참관해 연말에 개국 예정인 캠퍼스 TV에서 준비한 주요 콘텐츠들을 시청



두원공과대학교

식품계열 / 뷰티계열

우리 대학은 '토탈 뷰티를 선도하는 뷰티아티스트 체험', '1일 케이크디자이너, 파스타 셰프 체험'이라는 체험 직업명으로 뷰티아트과, 호텔조리과 2개 학과가 직업체험관에 참여하였다. 뷰티아트과는 네일아트, 트렌드 메이크업, 패션 타투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부스 방문객에게 최신 뷰티아티스트와 관련된 체험을 진행하였다. 호텔조리과는 방문객이 직접 선택한 재료를 그 자리에서 조리해주는 파스타 셰프 체험과 머핀에 생크림을 디자인하여 시식할 수 있는 케이크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금번 EXPO 직업체험관 운영은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직로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적성이 맞는지 흥미를 느끼는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백석문화대학교

식품계열

우리 대학 외식산업학부는 지난해 전문대학 EXPO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더욱 알찬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맛과 멋을 지배하는 파티셰 · 바리스타'라는 이름을 단 외식산업학부 부스에서는 아몬드 초콜릿, 가나쉬 초콜릿, 로쉐 초콜릿 등의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파티셰 체험과 에스프레소, 카페라테 등을 만드는 바리스타 체

험이 진행됐다. 외식산업학부는 학생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파티셰, 바리스타 직업 체험으로 직업에 대한 현실감각을 심어준은 물론 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은 학생들에게 입시, 진로에 대한 정보와 진학상담까지 함께 진행되었다. 특별히 초콜릿 제조 실습은 지난해 500명 분의 재료가 모자랐던 경험이 있어 올해는 그 두 배인 1,000명 분의 재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1,000명 분의 재료도 금세 동이 나 백석문화대학교 부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외식산업학부장 안호기 교수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학생들에게 파티셰와 바리스타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꿈은 꾀야 이룰 수 있다. 그 꿈을 백석문화대학교에서 함께 꾀보자."고 학생들을 독려했다.



부천대학교

공학기술계열 / 식품계열 / 관광레저계열 /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은 직업체험관 공학기술, 식품, 관광레저, 의료보건 등 다양한 계열의 체험부스를 선보였다. 공학기술계열에 전자과 ▶LED플라워 만들기, 가상드론 비행 체험, 식품계열에는 호텔외식조리과 ▶조리사,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체험, 관광레저계열에 항공서비스과 ▶승무원 Hair-do, Meal Cart 등 수업체험, 의료보건계열에 간호과 ▶심폐소생술, 혈압측정, 노인대상자 체험 및 입시상담을 같이 진행하였다. 기획조정처 박경환 처장은 "이번 박람회회를 통해 부천대학교의 특성과 장점을 학생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1:1 상담을 통해 맞는 수시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대학관련 학과, 입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대학교

식품계열 / 뷰티계열

우리 대학은 호텔외식조리과와 뷰티아트과 등 2개 학과가 참여했다. 호텔외식조리과는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미래의 파티셰와 함께!'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EXPO행사 15일 전부터 1학년 백한솔 학생 등 재학생 8명이 학교 실습실에서 행사에 사용할 쿠키, 마들렌, 머핀 등을 하루 1천개씩을 만들어 내는 강행군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쿠키 등은 냉동 보관했다가 EXPO행사 기간 동안 우리 대학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줘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김창호 교수는 "요즘 한국사회는 모든 국민이 요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우리대학의 부스를 찾는 분들이 많았다"며 "EXPO행사를 통해 학과 홍보는 물론이고 재학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뷰티아트과는 '서영 뷰티아트 셀프 스타일링 & 체험'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3년 연속 참가하는 학과답게 뷰티아트과는 최선아 학과장을 중심으로 학과교수들과 재학생들의 호흡이 잘 맞았는데 체험부스를 뷰티아트 셀프 스타일링과 뷰티체험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했다. 뷰티아트 셀프 스타일링에서는 부스 방문자들에게 헤어 스타일링과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고, 뷰티체험에서는 레인보우 타투와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최선아 교수는 "전문대학EXPO행사에 매년 참가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참가대학들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래의 뷰티서비스산업현장의 시장 규모를 생각해 보면 취업 및 창업이 유리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일대학교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직업체험관에 문화예술계열 소품가구 체험에 참여하였다. 소품 가구는 생활가구디자인과의 전공 동아리인 '퍼니처 리퍼블릭'에서 탁상시계와 요리프로 그램에 나와서 인기 있는 빵도마를 반제품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나무 자체를 느낄 수 있도록 자작나무와 소나무로 만들어 기본틀을 제공하였으며, 참가자가 직접 사포나 줄을 사용하여 표면과 모서리를 깨끗하게 정리 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과 동참한 학부모들도 체험에 참가하면서 준비된 재료들이 일찍 소비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체험용 탁상시계와 빵도마는 '퍼니처 리퍼블릭' 동아리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기계로 깎아 만들어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스에서 체험 도우미로 참여한 동아리 학생은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체험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전공에 대한 뿌듯함과 자신감도 생겨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말했다. 지도교수인 이영춘 교수는 "준비한 작품들이 인기가 있어 기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고생한 학생들에게 매우 고맙고, 함께한 것에 매우 큰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여자대학교

공학기술계열 / 식품계열 / 관광레저계열 /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은 간호학과, 레저스포츠과, 식품영양과, 모바일미디어과 등 4개의 대표 학과가 소개됐다. 간호학과는 '휴머니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간호인력 양성 학과'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취업 강점을 어필했다. 레저스포츠학과는 해양관광레저산업과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의 두 가지 전공으로 나뉘어져 운영되었다. 부스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직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망, 개설 과정, 취득 자격 등이 쉽고 자세하게 소개됐다. 차세대 IT 융합산업을 선도하는 21세기 유망학과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모바일미디어과도 소개됐다. 모바일미디어과는 산업체 실무중심 교육과 현장실습 강화, 첨단 실습 장비와 쾌적한 수업 환경 제공, 체계적인 모바일 개발 지원, 수요가 풍부한 21세기 유망 직종이라는 4가지 강점을 내세워 박람회 참여한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본교의 대표학과인 식품영양과도 소개됐다. 특히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골다공증을 예방을 위한 골밀도 측정 프로그램, 체성분 분석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부스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송의여자대학교

기타계열

전문대학이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인 이번 행사에 우리 대학은 유아교육과, 가족복지과, 아동미술보육과가 참여하였으며, 엑스포 기간 내 많은 학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엑스포에 방문한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풍선아트 및 캐릭터 배지를 제작하였으며, 유아교육에 관한 교재교구전시도 함께 하여 미래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신구대학교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이번 2015 엑스포에서 미래의 고객인 고등학생들에게 팝업카드 만들기(미디어콘텐츠과), 광고사진가 체험(사진영상미디어과) 및 식물 심기 체험(원예디자인과) 등 3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몄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직업체험관의 모습을 위하여 3개의 직업체험관에 원예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방문객이 체험관에 들어서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방문객들은 옛날 교복입고 사진 찍기, 식물 옮겨심기 그리고 신구대학교의 건물을 보여주는 입체카드 만들기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3일간의 전시기간동안 많은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하였고, 총장님의 방문과 격려로 신구대학교가 준비한 전문대학 엑스포는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16년 전문대학 엑스포에서는 더 즐거운 직업체험을 준비하여 예비대학생에게 대학을 다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 본다.



신성대학교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은 간호학과와 치위생과가 참여하여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직업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입시 상담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에 사흘간 7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우리 대학은 수험생들의 진로결정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권형태 신성대 입학관리처 주임은 “우리 학교는 제철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현대와 연계되어 있어 졸업생들이 현대에 많이 취직한다.”며 “이 외의 간호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등 많은 과의 학생들이 이론 뿐 아니라 다양한 실습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거듭난다.”고 말했다.



신안대학교

식품계열 /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디자인분야와 외식산업분야의 직업체험관 2개에서 총 5개의 직업체험을 진행하였다. 산업디자인 분야의 자동차렌더링 체험은 자동차 디자인 작업을 배우고 직접 드로잉해보는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을, 캐릭터 핀버튼 제작 체험은 캐릭터 또는 패턴 있는 문양에 학생들이 직접 색칠하여 뱃지로 만들어 착용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인테리어디자인 분야 체험에서는 투시도면에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채색을 해보는 디자이너체험을 하였는데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결과물을 출력, 코팅하여 추억을 간직하도록 하여 독특하면서도 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외식산업분야인 호텔외식산업과 체험관에서는 조주관

련 기물전시 및 각테일을 직접 주조하여 시음(학생-무알콜각테일)하고 바텐더와 와인에 대한 전시, 설명, 와인서비스 및 시음법(학생-포도주스)을 체험하는 등 소물리에의 직업세계를 경험하였다. 이날 강성락 총장은 “신안대학교의 직업체험분야들은 단순하고 형식적인 구성이 아닌 참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해줌으로써 고등직업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연성대학교

식품계열 / 관광레저계열

우리 대학은 항공서비스과와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이 참여하였으며, 첫날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와 직업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서비스과는 승무원 기내서비스 체험을 주제로 하였는데, 중·고교 학생들이 유니폼도 입어보고 승무원들의 헤어스타일도 따라해봤으며, 실제 비행기 안에 있는 카트에서 음료 서비스를 직접 해보는 체험도 하였다.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파티세 직업체험을 마련했다. 체험학생들이 쿠키도 직접 만들어보고 오븐에 구워서 시식까지 해보면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우리 대학과 서울대학교 및 ㈜비피도와 함께 연구하여 만든 비피도 유산균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여 한여름 더위를 식히기도 하였다.



오산대학교

뷰티계열

우리 대학은 전문대학 엑스포에 뷰티디자인계열이 참가하여 뷰티디자인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였다. 전공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에게 현실성 있는 실기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해당 학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다. 뷰티디자인 계열 학생들은 “이번 전문대학 엑스포를 통해서 오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뷰티디자인 계열 체험부스의 관계자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뷰티산업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의에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오산대학교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전하며 “최고의 현장중심 창의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송담대학교

기타계열

우리 대학은 컬러리스트가 직업체험관에 참가했다. 기타 계열로 참가한 컬러리스트과는 학과 특색을 심분 살린 색채조색 체험과 열 전자 체험을 동시에 진행했다. 색채조색 체험은 5가지 색을 이용해 다양한 색을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색의 이해를 돕고 색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체험이다. 또 열 전자 체험은 안경수건이나 마우스패드 등에 원하는 모양과 색을 스스로 디자인해볼 수 있는 체험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두 가지 체험 모두 재미와 흥미를 유발했다며 참가한 학생들 대부분이 “처음 접해보는 체험이라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다.”라며 의견을 전했다. 우리 대학 컬러리스트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컬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처음 접하는 이색학과에서 지금은 새로운 직무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유망학과로 떠오르고 있다.



원광보건의대학교

식품계열

우리 대학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직업체험 콘텐츠를 운영해 화제가 됐다. 일반적인 대학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서 탈피, ‘냉장고를 영어로 부탁해’라는 주제로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이색 아이디어 체험부스를 운영해 2만여 명에 달하는 참가자 및 대학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리사 직업체험과 직무영어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이 익숙해할 만 한 콘텐츠에 접목, 재구성한 것으로 보다 알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단순 체험 이상의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설계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우리 대학의 체험부스는 다양한 방송매체에 소개되는 등 대학홍보는 물론 고등직업교육의 중심에 있는 전문대학의 위상을 전파하는 데도 일조했다.



유한대학교

식품계열

우리 대학은 국내 최대의 진로직업체험 박람회인 전문대학 엑스포에 참여하여 학교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우리 대학은 식품계열에 참가해 호텔관광전공(바리스타&바텐더)과 관련된 직업체험부스를 설치했다. 전공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커피 전문가인 바리스타와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호텔관광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인천재능대학교

식품계열

우리 대학은 호텔외식조리과와 한식명품조리과를 중심으로 홍보 전시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체험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빠빠로 만들기과 머시멜로 풍두 만들기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작품 전시, 홍보영상 등 전시를 통한 대학 홍보로 성과를 올렸다. 엑스포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우리 대학 부스로 발길을 이어왔다. 우리 대학 호텔외식조리과와 한식명품조리과는 길지 않은 연혁 속에서도 글로벌 조리사 양성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전주비전대학교

뷰티계열

우리 대학 미용건강과와 참살이사업단에서는 이번 전문대학 엑스포에서 네일아트 체험관을 운영했다. 체험관에서는 엑스포 현장을 찾은 중·고교 학생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네일아트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미래 네일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체험관을 찾은 이지현 학생(고2)은 “평소 관심 있던 네일아트 분야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더욱 흥미를 갖게 됐다.”며 “미래 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참살이사업단장 이호숙(미용건강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중·고교생들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전문대학의 장점과 여러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사”라며 “각 전문대학들이 엑스포 현장에서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준 강점 영역과 경쟁력 있는 학과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직업인력을 배출해내는 전문대학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대학교

관광레저계열

우리 대학은 이번 엑스포 참가 학교 가운데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타 지역과 교류가 적었지만 학교를 홍보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올해 22주년을 맞아 전체 21개 학과를 소개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대학홍보도우미 학생들이 엑스포 관람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은 관광 실무 교육 환경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홍보부스에 찾아온 관람객에게 카지노딜러체험을 통해 뜨거운 관심과 수많은 입시 관련 질문들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호텔경영과, 카지노경영과, 항공서비스과 등은 타 대학과 차별성을 두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해외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 교류가 활발하여 해외연수와 취업이 강점인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한 입시상담에서 벗어나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 대학의 특성과 미래의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홍보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천안연암대학

기타계열

우리 대학은 농·축산 특성화 대학에 걸맞게 환경조경과(조경사)와 동물보호계열(애견관리사) 직업체험관을 선보였다. 조경사 직업체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분재 화분 만들기에 참여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향나무를 화분에 심고 가지치기와 철사감기 등을 통해 직접 만들어보며 조경사의 기분을 느껴 볼 수 있었다. 또한 애견관리사 직업체험에서는 훈련된 애완견과 함께 직접 명령을 내리면서 조련하고 관리하는 체험을 하였다.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조경사 체험에 참여한 고3 학부모와 학생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전공 선택의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직접 참여해 보고 설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전했다. 예비 후배들에게 애견관리사 체험을 선보였던 동물보호계열 2학년 정다운 학생은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애견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하였다. 천안연암대학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문대학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특성화 대학으로서 관련 직업체험을 널리 알리고 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식품계열

우리 대학은 ‘문화산업대학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홍보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트레일러를 활용한 독특하고 이색적인 부스를 꾸며 관람객의 시선을 한눈에 받은 것이다. 빵을 만들 수 있는 주방으로 리모델링 된 트레일러와 함께, 푸드스쿨이 기획한 베이킹 데코레이션 체험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예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제빵학과 재학생이 직접 머핀을 만드는 시범을 보여주며, 체험자도 함께 직접 만든 머핀을 시식까지 할 수 있어서 인기 만점의 체험부스가 되었다.



2015 대한민국 전문대학
엑스포 직업체험관
참가 후기

전문대학의 밝은 앞날 알리는 기회에 감사

“와!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 우리도 발전하고 있지만 더 노력 해야겠구나.”

코엑스에 들어서는 순간 전년도보다 더욱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진 전문대학 엑스포를 통해 각 대학들의 자부심과 열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더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의 다양한 학과의 직업군들의 홍보와 직업 실기를 통해 많은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표정에서 “오길 잘했다”,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만족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엑스포는 마치 축제와 같아서 참여자들 모두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미래의 직업과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각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체험실기와 입시상담은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탁월한 행사였으며 생소했던 대학과 학과 특히 지방권 전문대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 또한 참가하면서 학생들의 열정, 각 학교와의 경쟁, 정보의 필요성, 춘해보건대학교 교수로서의 사명감을 다지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미래교육의 중심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각 학교의 명예와 자부심이 빛난 행사였습니다.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전문대학 엑스포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다음 엑스포를 기대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춘해보건대학교
오현주 (간호학과 교수)



춘해보건대학교

의료보건계열

우리 대학은 간호학과가 전문대학 엑스포에 참가했다. 미래의 직업과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본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다양한 체험부스 중에 의료보건계열은 선호도가 높았다. 이번 행사에는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맥주사, 근육주사, BST 및 혈압 측정 등 간호절차에 따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고, 간호처치에 사용되는 의료도구인 신체 모형 마네킹과 메디켓, 알코올 솜, 혈당측정도구 등 의료 물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간호사에 대한 관심도와 간호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학과 최고은 학생은 “졸업 전, 우리대학의 명성을 알리고 빛낼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뻐다.”며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리를 통해 예비간호사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고 임상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청대학교

관광레저계열

우리 대학은 직업체험관 관광레저 존에서 항공객실 승무원 체험관을 운영했다. 항공객실 승무원 체험 행사는 항공관광전공 학생 8명과 교수가 참여해 운영했으며 승무원 유니폼 착용체험, 퍼스널 컬러를 통한 개별 이미지 체크 및 메이크업, 헤어, 기네식 및 음료 서비스 체험 등이 이뤄졌다. 체험 중에는 페이스 보드를 활용한 개별 이미지 체크와 헤어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관 현장에는 장래 항공 승무원이 꿈인 학생들이 찾아와 교수와 상담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체험관을 방문한 학생들에게는 다트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민양기 교수는 “이번 체험 행사는 장래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일간 열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준 학생들이 너무 대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안장혁 학생(항공관광전공 학회장)은 “장래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밀려드는 학생들로 힘들었지만 이번 엑스포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예비 항공승무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생겼다.”고 밝혔다.



한국관광대학교

식품계열 / 관광레저계열 / 기타계열

우리 대학은 항공서비스과와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호텔제과제빵과, 디지털관광과, 군사과가 항공사 객실 승무원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다. 항공서비스과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객실승무원의 이미지에 접근하여 본인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체험과 진로상담을 위하여 항공서비스과 재학생 및 교수진은 질서 없는 체험과 상담이 진행되었다. 항공서비스과 재학생들은 항공사 기내서비스 실습, 안전장비설명,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연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상징인 올림머리 연출 등을 운영하여 항공사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항공서비스과 교수진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학생들에게는 항공관련학과 입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고,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승무원에 대한 동경만 가진 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였다.



한국복지대학교

기타계열

복지특성화 대학인 우리 대학은 귀금속보석공예과, 수화통역과가 참여하였으며, 대학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기반 원격교육지원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귀금속보석공예과는 체험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완성품이 아닌 자신만의 반지를 만들어 가져 갈 수 있는 현장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수화통역과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기회가 되었다. 한국복지대학교 이창호 총장은 “이번 전문대학 엑스포를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입학정보박람회를 통해 한국복지대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영상대학교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창의적 영상콘텐츠 제작 전문가’란 주제로 체험관을 운영하며 중·고교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방송영상특성화대학인 본 대학은 체험부스를 사극촬영현장으로 디자인하고, 곤장과 주리형틀, 의상 등으로 사극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관람객들이 배우로 참여하는 한편 이 장면을 4k카메라, 달리 등을 통해 사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3D 입체영상 카메라를 활용해 EXPO 전시 내용을 현장 중계하고, 드론, 조명, 스태디캠, 지미집 등을 전시하며 영상촬영에 활용되

는 다양한 장비 체험을 실시했다. 촬영 현장 체험을 인증샷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소소한 재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체험에서는 대학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연출, 촬영, 조명, 연기 등 한 번에 여러 가지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양여자대학교

문화예술계열

우리 대학은 ‘도예가’라는 직업체험을 목적으로 본 대학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였다. 3년에 걸쳐 개최된 전문대학 엑스포의 성과를 말해주듯 올해는 보다 많은 인원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이 엑스포의 개최 첫날부터 느껴졌으며, 3일간 쉴 틈 없이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대학의 도예가 직업체험은 ‘물레체험’과 ‘도자기 핸드 페인팅’ 두 가지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물레위에서 돌아가는 흙을 만지며 손동작의 움직임으로 자신이 원하는 도자기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은, 참여자에게 낯설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또한 체험자가 직접 도자기에 붓으로 색을 입히고 준비한 가마에 그것을 구워내어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도자기 핸드 페인팅’ 체험자들의 모습에서 진지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어서 직업체험관을 운영하면서도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취업으로 가는 빠른 선택 [전문대학]

전문대학포털 MY COLLEGE

진로와 진학, 취업을 위한 정보 등 전문대학의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곳 [MY COLLEGE]



mycollege.kr

